

# 中央藥大 同門會報

The Alumni News of the Chungang University College of Pharmac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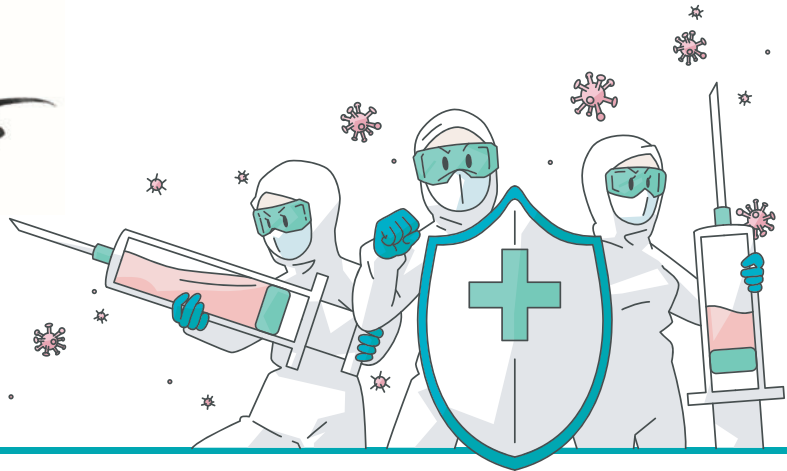
2021  
vol. 48

Summer



중앙대학교약학대학동문회  
<http://www.caupharm.or.kr>

힘써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 Contents

중앙약대 동문회보 2021년 여름호

시론

- 3 화합을 통한 미래로의 전진  
이정수(33회) 동기회장

제23대 회장단 인사말

- 5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문회의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  
권석형(23회) 동문회장

- 6 동문회가 발전하려면  
여동문들이 적극적으로 함께 해야 할 때  
김희식(28회) 여동문회장

별난동문이야기

- 23 약사의 새로운 진로, 벤처캐피탈리스트  
김준식(43회)

문학산책

- 26 '오도치' 길 위에서의 상념(想念)  
김종기(18회)

- 29 세체니 다리에서 본 부다페스트 야경  
-로마에서 다시 한번 소매치기 당하고 싶다  
박희용(23회) 편집위원

추모의글

- 36 손동헌 교수님을 추모하며...  
손의동(22회)

7 제23대 회장단

대약후보 인사말

- 9 고난의 시기를 넘어 약사가 행복한 미래를  
위해  
-약사회 수장이 되기 위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최광훈(22회)

학교소식

- 38 · 손동헌(1회) 약대 명예교수,  
발전기금 1억 쾌척  
· 약학연구소,  
교육부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 선정  
· 약학대학 정경혜 교수, 2021년 약사포상  
시상식에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  
· 약학대학 나동희 교수, 2021년 과학의 날  
기념식에서 '국무총리 표창' 수상  
· 약학대학 황완균 교수 연구팀, 첨단 한약(생약)  
제제 품질평가 기술개발사업 주관연구기관 선정  
· 손의동, 서동철 교수 정년퇴임  
· 신입교수 프로필

동문회소식

11 화보

- 14 명성에 걸맞는 동문회 조직이 되자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문회 제64차 정기총회  
17 후배 사랑에는 이유가 없다  
익명의 선배 장학기금  
(4년간 전액 장학금 + 생활지원금) 올해도 계속

약국도움이야기

- 19 코로나 이후의 변화된 삶  
정병욱(37회)

43 장학기금

44 회비내역

46 만평

47 편집후기

## 화합을 통한 미래로의 전진

어느덧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선 지 30여 년이 넘었지만 갈수록 척박해지는 약업 환경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의약분업의 문제점 보완, 한약사와의 업무 구분 등 여러 약업계의 묵은 현안과 요즘 들어 종종 일어나는 불법 개설, 의사와 약사들의 수직적 관계, 주변 약국들과의 도를 넘어선 경쟁이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문득 초등학교 처음 들어가서 국어시간에 배운 단어가 생각납니다.

'나, 너, 우리, 대한민국'

나도 중요하지만 너도 중요하고 나와 너가 모여 우리가 되고 나라가 만들어지는 나름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너는 무시하고 나만 생각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내 약국만 잘되기 위해서 담합행위를 하거나 난매를 치거나 불법 행위를 하지는 않는지 등등 나 혼자만 생각한다면 우리 약사사회의 발전은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약국뿐만 아니고 옆 약국이 같이 잘 될 때, 우리 약사사회는 더욱 발전하고 큰 힘을 갖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같이 웃고 행복해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정 수(33회)  
동기회장

작년부터 전세계적으로 몰아친 COVID-19 사태는 2020년을 넘어 2021년에도 수그러지지 않으며 계속 변종이 나오면서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마스크 쓰기가 일상화 되었고, 공적이든 사적이든 여러 만남이 중단되었으며, 온라인 플랫폼으로 회의, 교육을 하는 세상이 불쑥 찾아왔습니다. 우리 약사사회의 예를 들어도 총회를 비롯한 많은 회의들, 연수교육, 학술 심포지움 등등이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많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컴퓨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약에 대한 지식만으로는 부족하고 컴퓨터 사용을 공부하지 않으면 세상을 쫓아가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빠르고 편리해지는 면도 있지만, 점점 복잡해지는 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봅니다. 인간미가 없어지는 것은 덤이지요.

작년에는 공적마스크 판매라는, 좋게 보면 치적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많은 희생과 수고를 하였습니다. 수십 미터를 넘는 줄세우기, 많은 구매자들의 불만을 받아주어야 했고, 본래 업무의 마비, 약속했던 세제 지원의 무산 등등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아직도 약국가는 환자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을 대면할 수 밖에 없는 환경, 다른 업종도 마찬가지지만 매출 감소 등의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각자의 건강을 챙기며, 학술적인 내용뿐 아니라 교양과 상식의 실력을 키우고 우리가 가진 역량을 발휘하여 빨리 이 사태가 종식되고 예전처럼 활기찬 삶이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내년에는 나라뿐 아니라 약사회에도 중요한 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지연, 학연에 연연하지 말고 실력과 비전을 가지고, 추진력이 있는 일꾼이 나와서 더욱 역동적이고 발전하며 화합하는 우리 약사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각자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한 표를 행사하여 더욱 살기 좋은 나라, 신바람 나는 약사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마지막으로, 동문회에 대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내가 있을 수 있었던 바탕의 가장 큰 기둥은 나의 모교임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동문들 한 명 한 명의 작은 관심이 모여 큰 동문회, 힘있는 동문회가 될 것입니다. 나 한 명쯤이야 하는 생각을 하지 말고 조그마한 애정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각자 학교, 회사, 개업약사, 또 다른 분야에서 각기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하다 보면, 모교도 발전하고 더 크게는 약사 사회도 더욱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중대 약대 동문 선후배 여러분, 모두 힘내서 화이팅 합시다!



##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문회의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



권석형(23회)  
동문회장

동문님들 안녕하십니까? 제23대 동문회장 권석형입니다.

올해도 어느덧 절반이 지나가고, 선선한 계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만 같던 코로나19 팬데믹은 백신 접종과 치료제 개발 등의 소식을 통해 긍정적인 분위기가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남은 2021년도 희망찬 일들이 이어지며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난 4월 10일 그동안 선대 회장님들과 동문 여러분들이 아끼는 마음으로 발전시켜온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문회 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성원해 주신 선후배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신임 회장으로서는 지금까지 쌓아온 성과와 정신을 이어받아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앙대학교 약학대학은 본교의 창학 이념인 '의와 참'의 정신을 교육 이념으로 삼아 진리를 탐구하고 올바른 창의정신을 바탕으로 약학교육을 통해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이후, 68여 년의 역사 속에서 제약, 바이오뿐 아니라 다양한 산업군 전반에 걸쳐 국민 건강 증진에 주도적 역할을 하는 우수한 인재들을 배출해오고 있습니다.

약학대학 동문회 역시 46년의 역사와 전통을 빛내며 발전을 거듭하여 명실상부 국내 최대 약사 네트워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우리 동문들은 약사사회에서 무엇보다 신뢰를 바탕으로 창의적인 인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함으로써 국내외에서 전문성을 발휘하며 활발하게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23대 동문회는 약사들의 지성 공동체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재학생들의 역할 모델이 되어주는 훌륭한 동문들을 발굴하겠습니다. 또한, 재학 중인 후배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우수한 인재를 지속적으로 배출해 낼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동문을 하나로 모으는 플랫폼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아직 직접적인 대면 만남의 자리를 적극적으로 마련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가능한 방법을 모색하여 공동체 의식을 확대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선후배 간의 친목과 우애의 결속을 바탕으로 상호 발전의 지렛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제23대 동문회의 새로운 도약에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동문님들과 가족분들 모두 건강 잘 챙기시면서 늘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동문회가 발전하려면 여동문들이 적극적으로 함께 해야 할 때



김희식(28회)  
여동문회장

안녕하세요. 저는 전임 양덕숙 회장님의 뒤를 이어 새롭게 여동문회 회장으로 선임된 28회 김희식 동문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여동문회장이란 직무를 맡게 되었지만, 책임감을 갖고 여동문들의 단합과 동문회 발전에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여동문회는 남녀공학의 특성상 여자대학교 동문회에 비해 회세는 크지 않지만, 역대 여동문회장으로 활동하신 선배님들의 노고로 지금까지 면면히 그 전통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제 기억에 27살이 되던 해 처음으로 여동문회에 참석했었습니다. 참석 계기는 전문지에서 중앙대 약대 여동문회 개최 기사를 보았고 '나도 중앙대 약대 여동문'이라는 생각으로 동기와 함께 무작정 참석했던 것입니다. 여동문회에 가보니 제가 참 어려 보일 정도로 대부분 중년 이상의 선배님들이 참석해 계셨고 젊은 저희들에게 "어느 신문사에서 왔느냐"고 물으시더군요.

그렇게 저의 여동문회 참여가 시작되었습니다. 제 기억 속, 그날 보였던 중앙대 약대 여자 선배님들은 참 당당하고 멋져보였습니다. 중간에 출산하고 육아하며 약사로서 일하느라 몇 번 빠지긴 했지만 30대 때부터 여동문회 모임에 참 열심히 참석했었습니다.

당당하고 멋진 선배님들을 만나고 오면 '나도 저렇게 멋지게 나이 들어야겠다!' 라는 다짐도 되고 느껴지는 것도 많아서 여동문회 모임에 참석하길 좋아했었습니다.

한 십여 년 전만 해도 여동문 모임이 지금보다 훨씬 활발했고, 매년 개최되는 여동문회 총회도 호텔에서 성대히 개최되기도 했었는데, 세대가 바뀌면서 최근에는 여동문회가 조금씩 규모가 줄어드는 것 같아 많이 아쉬웠습니다.

더군다나 작년 발발한 코로나-19로 모든 활동이 줄어들면서 동문회, 특히 여동문회는 모든 모임이 중단되어 더욱 위축된 것 같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오면서 중앙대 약대 동문이라는 것에 자긍심을 느끼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중앙인으로서 약사사회에 열심히 참여하였고 직전 경기도 안산 분회장으로 현재는 경기도 여약사회장, 전국 16개 시도지부 여약사회장 협의체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중앙대 약대 여동문 중에는 교수, 약사회 회장 및 주요 임원, 제약사 대표, 사업가 등등 사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여동문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동문회 참여는 극히 저조합니다.

이제는 이전과 달리 여동문의 비율이 크게 늘어났고, 무엇보다 동문회가 발전하려면 우리 여동문들이 동문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함께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동문회장으로서 우리 선배 여동문님들을 어떻게 모으고 동문회에 함께 할 수 있을지 많이 고민하고 실행하여 동문회 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3대 회장단

직위	기수	성명	직위	기수	성명
회장	23회	 권석형	부회장	23회	강한구, 김수종, 김영출, 박상진, 박종화, 박희용, 방용남, 신화섭, 윤명숙, 이승하, 임준석, 정덕기, 조병훈, 최의환, 하충열, 홍순옥
여동문화장	28회	 김희식		24회	이광섭, 이규삼, 이범도, 함삼균
수석부회장	23회	 서동철		25회	김광호, 문태화, 이광인, 이현수, 최두주
사무총장	30회	 최병원		26회	박정래, 최민규, 한갑현, 황완균
사무부총장	34회	 신수민		27회	곽나운, 박영달, 한봉길
	38회	 정민영		28회	구영삼, 김영희, 김희식, 양덕숙, 이영주, 이해룡, 장원규
	39회	 이정근		29회	강대용, 김은진, 김인혜, 김형수, 유형준, 이종민, 이종욱
				30회	김광식, 백영주, 이장무
				31회	심명섭
				32회	안광열, 정선종, 조양연, 진창연, 함인혜
				33회	신명수
				35회	김진, 예현주, 은형주, 이경선, 이성주
				36회	우경아, 임성호, 정창훈
			37회	박재형	
			41회	김소연, 김유강, 김정민, 이도성, 정동현, 최명수	
			42회	이광희	
			43회	김만석, 김준식, 장동훈, 이경은	

제23대 감사단

성명	기수	성명	기수	성명	기수
김흥진	20회	김수배	21회	강희윤	22회

제23대 상임위원단

직위	성명	기수	직위	성명	기수	직위	성명	기수
· 기금운영관리			윤리	정명진	18회	병원	임형미	32회
· 특별위원회	권석형	23회	편집	김기명	18회	홍보	이영주	28회
· 권익옹호			섭외	이해룡	28회	정보통신	이경모	37회
사무총장	최병원	30회	제약경영	장병근	29회	문화체육	손병로	29회
사무부총장	신수민	34회	공직약사	유명식	32회	청년약사	김성태	55회
사무부총장	정민영	38회	ROTC	이규삼	24회	청년약사	김윤	57회
사무부총장	이정근	39회	학술	김진수	36회	청년약사	김준하	63회

## 제23대 이사

1회	김기홍, 김순일, 박학전, 이광표, 홍흥만
2회	김종욱, 김홍식, 박문호, 신양균, 이문규, 정덕화, 황재수
3회	강승조, 김석자, 박종순, 배영식, 선우연, 손석우, 안경식 이기상, 이병균, 최종목
4회	구본원, 김기호, 김현용, 김홍수, 문창하, 박노일, 박승배 안국영, 이창우, 정재현, 천홍기, 한민희, 허인희
5회	강태일, 김상오, 김영배, 김채윤, 윤원영, 이명환, 정훈교 조동준
6회	김경희, 김동열, 김병기, 김태형, 박정배, 안인혁, 유관열 유상열, 유승균, 임완호, 장지용, 전희태
7회	김영덕, 김영일, 김정부, 박명신, 박상용, 박수배, 박숙자 배동운, 신완균, 용영일, 유영후, 이능세, 이양현, 이용원 정재일, 정조원, 최춘자
8회	김돈기, 김신자, 김연희, 김홍자, 김희영, 박도규, 박번일 배영애, 임상목, 오창준, 장영자, 조의환, 한석원
9회	권혁구, 김영빈, 김홍래, 문영동, 박성학, 박장우, 윤광노 이규진, 이근배, 최영근
10회	김광일, 김명민, 김영호, 박호일, 방순환, 변도문, 심수일 안영태, 유정사, 이양원, 이홍수, 정수길, 정영기, 조규동
11회	고승하, 김미자, 김승업, 김정길, 김창중, 박신규, 박찬희 신명승, 이명자, 이철규, 정덕호, 허정범, 황공용, 황문상
12회	강옥희, 남기탁, 노덕재, 노석준, 박영찬, 서태욱, 심재웅 염윤기, 우준하, 이관하, 이성우, 이정구, 이호섭, 이효훈 조택상
13회	구연홍, 김종성, 문재빈, 박동규, 서국진, 안병식, 엄계숙 윤해선, 이상길, 이종각, 이충식, 임유재, 최창엽
14회	구종모, 김동원, 김명웅, 김윤국, 박기진, 신광근, 양인승 엄태항, 윤대봉, 정진도, 조길도, 조병화, 조영연
15회	고동석, 김용의, 박석동, 오세일, 원장희, 윤종준, 이상용 이영운, 임영식, 조찬희, 최영덕
16회	고숙자, 권영복, 김광식, 백승복, 송용만, 안태환, 이상규 유기욱, 이범준, 이은솔, 이은주, 조기현, 차동일, 최광식 최창원, 하상권, 한인희, 허사길
17회	김성택, 장재인, 신상직, 양희익, 김인형, 선우영환
18회	강응모, 김기명, 김애경, 김종기, 박계환, 전광우, 정명진 조중형
19회	권창호, 김경오, 김재민, 김행소, 남상구, 박효식, 안병호 옥태석, 유태일, 이경옥, 이창욱, 임종철, 장호성, 윤건섭
20회	구장림, 권오규, 김대승, 김현태, 김홍진, 류화송, 문주기 박기배, 박영근, 배성진, 송창수, 유영내, 이극선, 이상일 이영희, 이호선, 임경원, 임구래, 정찬헌, 조진환, 최석중 한광식
21회	김대일, 김중효, 김수배, 백운경, 양주석, 홍종오
22회	강명희, 고부환, 고석순, 김인선, 김태일, 김홍진, 박동우 박상용, 손의동, 오형영, 유대식, 이규홍, 이명옥, 이영욱 이정석, 이준상, 이진우, 이현희, 전일수, 차달성, 천경호 최광훈, 한만영, 한상훈
23회	곽창림, 김진섭, 박찬남, 이계석, 임동현, 정관영, 조종호

24회	김승재, 양성철, 임무호, 장규옥, 정종근, 조종래, 최영욱 함한성, 황규진
25회	고성권, 김희섭, 김완기, 백광현, 성낙순, 이내홍, 이민원 이완희, 이종인, 조순현, 김춘규
26회	김정수B, 김화기, 선우일원, 권송상, 손영상, 윤용혁, 김안식 김학철, 이영준, 유영한, 윤광중
27회	김덕진, 민병희, 박수길, 변옥희, 서평서, 오순용, 오흥설 유재수, 윤영한, 이원일, 이창오, 최기선, 최중대, 최충식 현기원
28회	강철순, 고재호, 김유근, 신영무, 양창국, 유희동, 이병천 이상수, 이숙희, 전금용, 정원태, 조상오, 조형진, 최용철 한용문
29회	박웅삼, 서경원, 손병로, 유종운, 이 준, 이진자, 하숙량 한일룡, 현상배
30회	고석일, 김연하, 김정일, 김해승, 김현학, 김혜수, 신일균 윤미숙, 이진우, 정의차, 정용진, 최병태, 현익상, 홍성광
31회	김성국, 변동선, 오세정, 유희정, 이미자, 이춘로, 황선미
32회	김신규, 박병호, 유명식, 이경우, 정영복
33회	김은곤, 김영재, 이정수, 조준상
34회	김보원, 전형수
35회	강익석, 곽정근, 김미정, 고건호, 서유정, 송지숙, 양윤정 오창현, 이기훈, 이상훈, 최규룡, 황광우, 임종식
36회	김진수, 이정석
37회	김학선, 장미경, 이정우
38회	임항숙, 최은영
39회	권성렬, 박성훈, 한은경
42회	정동만, 정원석
44회	이선영
45회	김권식
46회	민지홍
47회	남우현
48회	차자현
49회	김성근, 김원호
50회	남윤성
51회	김홍진, 문효진
52회	장진영
53회	강형규
54회	임재춘
55회	김민성, 김성태
56회	신상윤, 이경민
57회	김 윤, 주혜진
58회	김태수, 김희주
59회	이기철
60회	한석경
61회	정영섭
62회	박영호
63회	김준하, 오교빈



## 고난의 시기를 넘어 약사가 행복한 미래를 위해

-약사회 수장이 되기 위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문 선후배 여러분!

동문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제22대 약학대학 동문회장의 직을 순조롭게 마무리하고 저 최광훈이 인사드립니다.

무엇보다 미증유의 고통스러운 시간을 이겨내고 어려움 속에서도 미래를 설계하고 계시는 동문님들의 안녕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분명 적지 않은 진통을 겪었지만 동문 여러분의 소중한 뜻이 결집되어 대한약사회장의 길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 어려운 과정이 앞으로 펼쳐질 대장정에서 저에게 무엇보다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동문들의 바램과 기대를 절대 잊을 수 없는 저로서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던 힘도 내야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출발선 상에 섰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요즈음 많은 약사 선후배님들을 만나 뵙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약사의 위상에 대한 자각과 반성에서부터 출발하여 끝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성, 예컨대 약사로서의 정체성 확립을 필두로 해서 약사회 발전방안, 구체적인 정책, 약사가 도달해야 할 미래 등 금과옥조로 삼을 소중한 말씀들을 아낌없이 해주셨습니다.

특히 동문님들이 따뜻하게 전해 주시는 격려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용기 백배, 힘을 얻고 있습니다.



최 광 훈(22회)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없는 것이다.  
 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치열함이 없는 것이다.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열정이 없는 것이다.  
 끝까지 답을 내는 조직, 끝까지 답을 내는  
 사람이 되어라.

선배동문님께서 가슴 속 깊이 새겨두고 선거에  
 임하라고 화두로 주신 말씀입니다.

막상 선거라는 과정에 돌입하게 되면 피치 못하게 겪어야 할 모든 어려움, 파생되는 위험성, 끝도 없이 엄습하는 두려움 등등을 피해갈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어떤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지라도 동문님들의 격려의 말씀 한마디, 등 두드려 주시는 따뜻한 응원으로 무장하여 모든 것을 극복하고 오로지 승리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헌신의 힘을 다해 나아갈 것입니다.

오로지 약사사회의 발전과 약사가 행복한 미래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마음을 다잡으며 힘차게 나아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이 길이 동문의 명예를 지키는 길임을 명심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하여, 다시 한번 동문님들의 큰 사랑과 도움을 절실하게 부탁드립니다.

오늘 뜬 저 달이 꼭 차면 추석을 맞이하게 되겠지요.

보름달처럼 넉넉한 여유와 풍요로움이 함께 하는 명절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동문님들의 뜻과 함께할 것이며, 동문님들과 약속을 태산과도 같은 무거움으로 받아들여 행동의 지침으로 삼겠습니다.

무엇하나 만만하게 없는 세상, 늘 강건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1

02

03

2월 25일\_ 회장단회의

3월 11일\_ 고문단회의

3월 19일\_ 감사수감



01

02

03

04



3월 20일\_ 여동문회 임원회의

3월 27일\_ 최종이사회

5월 13일\_ 사무총장단회의

5월 17일\_ 인수인계





01

02

03

04

6월 8일\_ 총장 면담

8월 12일\_ 고문단회의, 자문위원단회의

8월 24일\_ 회장단회의

9월 4일\_ 초도이사회





## 명성에 걸맞는 동문회 조직이 되자

###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문회 제64차 정기총회

신임 동문회장에 권석형(23회) 동문,  
여동문회장에 김희식(28회) 동문 선임



모든 일상이 코로나 이전(B.C.)과 코로나 이후(A.C.)로 나뉜다는 그야말로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어려움이 계속되면서 동문회 활동 역시 계획이나 바램과 달리 때를 기다리는 일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날들이 계속되었다. 5인 이상 집합금지로 최소한의 모임조차 갖지 못하는 상태에서 총동문회가 어렵게 결단을 내려 예년보다 한 달가량 빨리 정기총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상황이 엄중함에도 모교 보직교수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방역이나 개인위생에 최대한 신경을 쓰고, 당연히 거리두기를 엄격하게 지키면서 대면 회의를 개최하기로 한 것이다.

지난 4월 10일 모교 약학관 3층 대강당에서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문회 제64차(2021 회계연도) 정기총회가 개최되었다. 방역 수칙을 지키느라 서로 살가운 인사를 나누지는 못하고 띄엄띄엄 떨어져 앉을 수밖에 없었지만 오히려 열기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았다고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이날 총회에는 22대 집행부의 임기가 종료되고 23대 새로운 동문회장을 뽑는 의미 있는 자리이면서 동문회 1년 살림을 결산하고 새로운 1년의 준비를 다짐하는 실무 토론의 장이 되어야 하느니만큼 1년 중 가장 큰 행사임을 다시금 느끼는 장이 되었다.



**최광훈(22회) 직전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문의 한사람으로서 새로운 각오로 동문회장을 맡아 의욕적으로 사업을 펼치고자 했으나 코로나 사태로 모든 것이 무위로 돌아간 점이 못내 아쉽다”고 소회를 토로했다.

이어 “소위 명문대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동문간의 돈독한 관계가 유지되는 대학이라는 점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우리 동문들이 코로나 사태로 어떤 활동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느끼는 아쉬움이 정말로 클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기회가 된다면 몸을 쪼개서라도 동문들의 각종 모임을 주선하고 또 참여하고 싶은 마음 간절하다”고 밝혀 참석한 동문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김하형(31회) 모교 학장**은 축사에서 “약학대학과 약학대학 동문회는 한 방향을 향해 같이 노력하고 협력하는 전형적인 관계를 끊임없이 이어가고 있으며, 코로나와 같은 중차대한 사태 앞에서도 장학사업을 위시해 모교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동문회에 감사드리며, 약학대학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모교에 대한 더욱 큰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중앙대학교 총동문회에서 정상근 상근부회장이 참석하여 어려운 가운데서도 학교 발전을 위해 쉬임없이 노력하는 약학대학의 위상과 기여에 감사한다고 격려의 말을 남겼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23대 동문회를 이끌고 갈 수장으로 권석형 신임 회장이 선출되며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문회의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권석형(23회) 회장**은 건강기능식품과 관련된 중견기업을 운영해 오면서 상대적으로 동문회 활동이 활발한 편은 아니었으나 동문회 이사 혹은 부회장의 직을 오랫동안 마다하지 않으며 주어진 역할을 꾸준히 해오고 있던바, 평상시 같으면 회장직에 나설 생각조차 안했겠지만 코로나로 모두가 힘들어하고 의기소침해지는 시기에 몸을 한없이 움츠리게 되는데 오히려 이럴 때 기꺼이 동문들의 작은 심부름이라도 수행함으로써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데 일조하고 싶다는 뜻을 분명히 하며 동문회장 선임의 변을 밝혔다.

올해는 약사회 수장을 뽑는 해이기도 하고, 지난 선거에서의 어려움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수 없는 시기이기도 하고 해서 몇몇 동문들의 의견 개진이 있었다. 이에 대해 권석형 회장은 단호한 어조로 “오늘날의 우리 동문회는 선배들의 열정과 헌신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잊지 말고 그에 걸맞은 동문회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선배들의 명성에 누가 되지 않도록 후배들로서 부끄럽지 않은 역할을 반드시 해야 한다. 나로서는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할 일 전혀 없고 선후배들과의 친소원 관계도 없는 담백한 입장이므로 어느 쪽으로 치우칠 염려 전혀 없이 백지상태에서 절대적인 객관성을 유지하며 오로지 동문회의 가치만을 바라보고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설파하여 많은 동문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선거 아닌 그 무엇이라도 동문회가 분열되는 행동을 하면 그것이야말로 동문들에게 큰 죄를 짓는 것이라고 분명한 어조로 강조했다.



수상자 명단

총장 공로패	학장 공로패	총동창회장 공로패	동문회장 공로패
 <p>홍종오(21회) 종오당약국 곽나윤(27회) 함께하는약국</p>	 <p>손병로(29회) 충훈당약국 진정주(38회) 진약국</p>	 <p>김수배(21회) ㈜파마켄 오황영(22회) 메디팜제주약국 김광식(30회) 용인윤약국</p>	 <p>이종각(13회) 사노피아벤디스코리아 책임약사 조병화(14회) 김은진(29회) 온누리시민약국 유형준(29회) 에스킨한방힐링센터 백희숙(34회) 권성렬(39회) 장안프라자약국 김만석(43회) 엘라스티랩</p>

이어진 감사 선임에서 직전 회기에 감사직을 수행한 김홍진(15회), 김수배(21회), 강희윤(22회) 동문들이 다시 한번 맡아서 고생해 주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다.

1부의 마지막에 이미 지난 회기에 소개가 되었지만 단발성이 아닌 4년간 등록금 전액과 소정의 생활비를 제공함으로써 형편이 넉넉하지는 않지만 성실한 후배가 아무 걱정없이 학업에 전념토록 하겠다는 익명의 동문이 지난 해에 이어 금년에도 같은 액수인 5천만원을 보내주셔서 지난해 수혜자인 강민규 동문과 올해 수혜자인 정석원 동문에게 전달식을 갖고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공식행사의 2부에서는 회무보고와 2020년도 일반회계 수입·지출 결산 심의와 2020년도 특별회계(장학기금) 결산 심의의 건, 감사보고, 2021년도 사업계획(안), 2021년도 일반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21년도 특별회계(장학기금) 예산(안) 등에 대한 승인이 핵심사안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곁들여 특별한 이의 제기 없이 이루어졌다.

특히 감사보고가 마무리된 후 김홍진 선임감사가 직전 동문회장과 사무총장에게 감사의 꽃다발을 전달하며 노고를 기리는 훈훈한 장면이 연출되며 동문회의 나아갈 길이 어떤 것인가를 일깨워주는 귀한 시간이 되었다.

또한 동문회 사무국에서 실무적인 역할을 묵묵히 수행해 오고 있는 박은희 실장이 20년 근속상을 받아 그간의 노고를 아는 많은 동문들의 진심어린 축하의 박수를 받았다.

참석한 내빈으로는 유정사(10회), 서국진(13회), 장재인(17회), 김현태(20회) 고문을 비롯하여 김희식(28회) 여동문회장, 이경옥(19회), 강희윤(22회), 곽나윤(27회), 양덕숙(28회) 여동문회 고문이 참석했고, 경기도약사회 박영달(27회) 회장도 우정 참석하여 신임회장 선임을 축하하고 협조와 우의를 다지는 기회를 마련했다.

모교 김하형(31회) 학장을 위시하여 손동헌(1회), 허인회(4회) 명예교수, 손의동(22회), 서동철(23회), 최영욱(24회), 황완균(26회), 박희용(23회) 교수가 자리를 빛내 주었고, 경성대 약대에 재직중인 송세현(43회) 동문이 어려운 발걸음을 마다하지 않았다.





# 후배 사랑에는 이유가 없다

익명의 선배 장학기금(4년간 전액 장학금 + 생활지원금) 올해도 계속

2019년 12월 약학대학으로 걸려온 한 통의 전화로 시작된 익명의 선배 장학기금 전달이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계속되었다. 특별히 재학생 중 한 학생을 선발하여 걱정 없이 학업에만 열중할 수 있도록 4년간 등록금 전액과 소정의 생활지원금으로 5천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액수의 고하를 차치하고 모든 장학기금에는 아무 이유없이 후배들에 대한 절절한 사랑이 배어 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특히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시작되어 그것도 연이어 적지 않은 금액을 쾌척해주신 그 마음을 가볍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처음 선발기준과 동일하게 학교와 동문회가 합심하여 그 뜻을 살릴 수 있는 적합한 후배를 찾는 데 공을 들여 2020년 강민규 학생에 이어 2021년 정석원 학생이 수혜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최초의 약속대로 장학금을 전달하는 모든 과정에서 본인의 모습을 절대로 드러내지 않아 아직 약국 현업에 종사하는 선배일 것으로 추정만 할 뿐 달리 접근할 방법이 없는 상황은 변화가 없으므로, 아쉽지만 그 분이 카톡으로 보낸 다섯 가지 기준을 되새기는 것으로 고마움을 가름할 수밖에 없다. 고맙습니다, 선배님!

- 1) 반드시 익명으로 전하여 주십시오
- 2) 가난한 학생을 선발하여 주십시오
- 3) 학생 선발은 약대동문회가 결정하여 주십시오.
- 4) 한 학생에게 4년간 계속 제공하여 주십시오.
- 5) 졸업후 성공(훌륭)한 약사가 되었을 때 또한 생활에 여유가 있을 때 후배학생에게 기부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이번에 19학번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문회 장학금에 선정된 정석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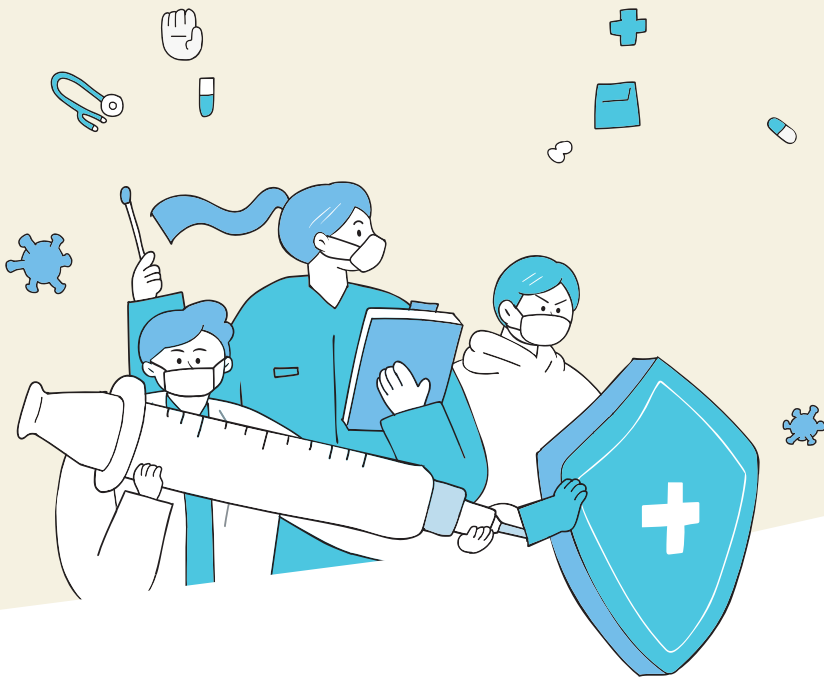
우선 중앙동 장학생으로 선정되어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소중한 기회를 제공해주신 선배님들과 중앙대 약대 동문회, 중앙대 약대에 감사합니다.

저는 약학 연구에 큰 관심을 가지고 약학 연구자가 되고자 결심하여 약학대학에 진학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맞춤형 약물치료를 할 수 있는 시대를 여는 가장 중요한 열쇠인 바이오마커에 관한 연구를 하고 싶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약대에 진학하여 박사과정까지 마친 후에 약학전문 연구자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제약회사 창업을 통해 제약산업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고자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익명의 선배님의 기부로 생긴 중앙동 장학금을 알게 되었습니다. 중앙동장학금의 취지를 읽어보니 본인이 받은 장학금을 나중에 후배들에게 나눠주고자 하는 학생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본래부터 성공한 후에 모교와 후배들을 위해서 기부를 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러한 꿈을 가지게 된 계기는 모교에 기부금을 전달한 성영철 대표님과 과학인재 양성을 위해 큰돈을 기부한 이수영 회장님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으며, 이러한 기부문화가 성행하는 게 우리사회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도 노력해서 이러한 기부문화에 작게나마 좋은 영향을 끼치고자 마음먹었습니다.

중앙대 약대 동문회 장학금에 선정된 덕분에 제가 오랜 기간 공부를 할 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받았던 많은 지원과 사랑은 반드시 중앙대 약대에, 더 나아가서는 우리 사회에 몇 배로 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 병 욱 (37회)



## 코로나 이후의 변화된 삶

세계적인 대혼란을 일으키고 수많은 인명피해를 낸 COVID-19 팬데믹(전세계적 유행)은 현재 진행형이다. 현재 다양한 제약업체의 백신이 공급되고, 각 국가마다 강력한 방역대책을 내놓으며 대응하고 있으나 유전자 변이가 쉽게 일어나는 RNA형 바이러스인 Corona Virus 특성상 완전히 퇴치하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이에 대규모 팬데믹이 일어난 이후의 사회적 현상과 경제적인 변화 등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다양한 바이러스의 출현과 대응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바이러스는 COVID-19만의 문제는 아니다. 매년 수많은 인명피해를 내는 Influenza Virus, 중국에서 발생했고 최근 캐나다 토론토에서도 발생한 SARS, 아이티의 Cholera, 한국의 MERS 및 미주 전역의 Zika Virus, 서아프리카 Ebola Virus, Respiratory Syncytial Virus(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RSV), 이미 전세계적으로 폭발적 감염을 보이고 있는 HIV 등 뿐만 아니라 기존의 바이러스들의 신종 변이체들, 지구온난화로 인한 빙하 해빙으로 인한 인류가 겪어보지 못했던 고대 바이러스 등 팬데믹을 일으키는 미생물은 앞으로도 수도 없이 출현할 예정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COVID-19 같은 대규모 팬데믹이 최근에 발생한 것처럼 여길 수 있으나 역사를 돌아보면 영장류가 진화하는 이래로 수도 없이 반복되어 왔다는 사실이다. 지금 우리



가 가볍게 앓고 지나가고 있는 Rhino, Corona, Adeno 등의 감기 바이러스류들은 이미 오래전에 우리 인간에게 전파되어 지금은 인간이 숙주화된 감염형태를 보이고 있다. 지금의 감기 바이러스처럼 숙주화된 바이러스류들은 정상적인 면역상태를 가진 숙주를 죽이지 않게 변이하지만, 유전자 변이가 일어나 인간의 면역체계가 대응하지 못하는 COVID-19 같은 신종 바이러스가 발생하면 대규모 팬데믹이 일어나게 된다.

현재 진행형인 COVID-19 사태는 역사를 통해 수많은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가 신종 전염병을 감지하고 대응하기 위해 얼마나 준비가 부족했는지를 상기시켜 준다. 또한 현대의 교통의 발달과 인적교류의 증가가 팬데믹의 확산에 얼마나 크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게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방역관리와 방역에 대한 투자 필요

과학과 의학이 발달한 현재에도 COVID-19 팬데믹으로 드러난 방역의 약점을 살펴보면, 의료시스템이 잘 확립된 선진국에서조차 SARS-CoV2 발병의 초기 징후를 감지하거나 단호하게 대응하지 못했다. 즉, 초기 대응에 실패하여 인간들 사이에 전염이 이미 확산된 후 바이러스의 확산과 싸우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일부 국가들은 대중에 대한 질병정보 홍보, 확진 테스트, 접촉 추적, 중환자 치료 설비 확충 및 전염병 억제제를 위한 여러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고군분투했으나 정부 수준에서나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사이의 불분명하거나 중복되는 역할은 더 많은 방역 차질을 초래했다. 그리고 까다로운 임상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백신 출시의 어려

움, 신종 백신의 확보 부족과 임상시험이 충분하지 않은 백신 투여에 대한 불안감 등도 팬데믹 확산에 일조를 했다.

이러한 약점을 수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방역관리와 방역에 대한 투자를 하고, 현재 진행중인 COVID-19 대응을 더욱 강화하고 공중보건 시스템을 강화함으로써 미래의 대규모 전염병의 발병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MERS 팬데믹 경험을 통해 방역시스템을 어느 정도 잘 갖추었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공중 보건 및 기타 공공재에 대한 투자는 매우 저평가되어 있고 어려운 일이다. 성공이 보이지 않는 예방 조치에 대한 투자는 더욱 그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방역에 대한 아낌없는 투자와 R&D를 통해 COVID-19 팬데믹을 겪고 얻은 교훈과 경험을 바탕으로 인류를 위협할 수 있는 신종 팬데믹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 대규모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변화와 경제적 혼란과 대처

COVID-19 팬데믹이 우리의 사회적 변화에 미치는 영향과, 개인과 가족, 지역 사회와 정치인, 국가 및 글로벌 기관에 미칠 영향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텅 빈 거리, 문을 닫은 상점, 환자가 넘쳐나는 병원, 전 세계가 보이지 않는 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전쟁 중이다. 많은 유전자 변이 바이러스 발생으로 인해 질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완벽한 백신은 아직 가능성은 멀고, 우리의 최선의 무기는 물리적으로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방법밖에 없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명을 구하는 반면 세계 경



제를 위축시키고 일자리는 위협받을 수 밖에 없다. COVID-19 대규모 발병은 사회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가장 취약한 상황에 있는 사회 집단의 구성원, 즉 빈곤 상황에 사는 사람들, 노인, 장애인, 청소년 및 저개발 국가 원주민 등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대규모 바이러스 확산에 의해 빈곤계층에게 건강 및 경제적 영향이 불균형적으로 미치고 있다. 예를 들어, 노숙자는 안전하게 대피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바이러스의 감염 위험에 크게 노출될 수 있다. 상수도원이 확보되지 않아 수도물을 이용할 수 없는 사람들, 난민, 이주민 또는 실항민 역시 제한된 이동, 더 적은 고용 기회, 증가된 외국인 혐오증 등으로 인해 전염병과 그 여파로 인해 불균형적으로 고통을 겪게 된다.

수백만 명의 저임금 집단 노동자와 사람을 응대해야 하는 근로자가 일반적으로 여러 사람들과 물리적 거리가 가까운 곳에서 근무함으로써 인해 최소한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장 큰 고통을 겪을 것이라고 경고되고 있다. 사람들의 이동과 경제 활동의 범위에 대한 제한이 확진자 수에 따라 연장되고 국가의 재정 대응이 소득과 소비자 지출, 특히 팬데믹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기본 생활 지출이나 의료비를 뒷받침되지 못할 경우 경제적 여파는 더욱 커질 수 있다.

COVID-19 팬데믹은 공중 보건, 식품 시스템 및 직업 세계에도 전례 없는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혼란은 파괴적인 수준인데,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극심한 빈곤에 빠질 위험에 처해 있으며, 현재 거의 6억 9천만 명으로 추산되는 영양실조 인구가 연말까지 최대

10억 3,200만 명까지 증가할 수 있다. 수백만 개의 기업이 실존적 위협에 직면해 있으며, 전 세계 33억 명의 전 세계 노동력 중 거의 절반이 생계를 잃을 위험에 처해 있다.

전례 없는 산업구조의 개편 예상

이번 COVID-19 팬데믹이 어느 정도 진정되더라도 이번 사태의 충격을 겪은 세대 동안은 사람과의 거리두기에 대한 트라우마로 인한 사회적 영향이 지속될 것으로 여겨진다. 즉, 다시 COVID-19 팬데믹 이전 시대로 돌아가는 것은 단시간 내에 매우 힘들 것으로 여겨지며, 사람 직접 응대 직업, 자영업 감소 등의 많은 직업의 변화와 온라인 상거래 증가, 4차산업 발달, 제약 및 방역관련 산업 발달 등 산업구조의 개편이 예상된다.

팬데믹이 우리 경제에 얼마나 큰 타격을 줄 것인지는 또한 우리의 합리적인 정책에 달려 있다. 보건 지출을 우선시하고 팬데믹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가구에 소득 지원을 제공하는 잘 설계된 재정 부양 패키지는 심각한 경기 침체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정책을 통해 적절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 위기는 중장기적으로 불평등, 배제, 차별 및 글로벌 실업을 증가시킬 수 있다.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사회 보장 시스템은 근로자를 보호하고 빈곤의 확산을 줄이는데 지속적인 효과적인 역할을 한다. 즉, 어느 정도의 기본소득 보장을 제공하여 사람들의 충격 관리 및 극복 능력을 향상시키는 국가 정책이 필요하다.



### 사회적 문화적 발달과 불평등 증가의 이중주

한편, 역사를 돌아해보면 수많은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대규모 전염병의 뜻밖의 결과 중 하나는 사회적, 문화적 발달과 불평등의 증가이다. 아테네 역병은 삶, 죽음, 신의 역할에 대한 전통적인 관점에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사상가들을 더욱 급진적으로 만들었고, 흑사병은 종교와 철학의 판도를 바꾸고 의료 윤리의 변화와 사회 복지의 개선을 고무했던 것 등 긍정적인 측면들도 알려져 있다. 또한 과거 대규모 팬데믹은 노동 가치에 대한 균형을 바꾸기까지 했으며, 1665년 런던 팬데믹때 작가인 사무엘 페피스(Samuel Pepys)는 런던 시민이 10만명 사망하는 와중에 그의 재산이 3배 이상 증가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현재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Jeff Bezos)와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Elon Musk)는 팬데믹기간 동안 순자산을 수십억 달러 늘렸지만, 많은 직원은 감소된 급여와 직장에서 COVID-19 위험에 직면했다.

마찬가지로, 1918년 Influenza 발병 당시와 그 이후에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감염되고 약 5천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의약품 공급업체는 엄청난 이윤을 얻었고 지금도 일부 COVID-19 백신 제조 의료제약 선진국가들은 천문학적 이윤을 얻고 있다.

COVID-19 팬데믹에 의해 2025년까지 약 16조~35조 달러의 전염병 관리에 대한 비용이 발생하고, 그 중 직접적인 치료 의료비용이 약 8조 6천억 달러가 발생할 것이라고 보고되고 있다. 장기적인 구조적 비용으로 분류하면 교육, 소득 격차 해소, 건강 문제 해결 등에 관한 비용이 포함된다. 교육 측면에서, 지난 2년간 교육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했고, 전 세계적으로 약 250만 명의 여성이 직장을 떠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소득 불균형의 증가로 억만장자 자산은 전염병 기간 동안 55% 증가했다. 이는 이미 억만장자였던 사람들에게 1조 6000억 달러가 이동되었음을 의미한다. 강력한 경기부양 정책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돈의 가치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근로를 통한 소득보다는 부동산 투기, 주식 투기 현상 등이 각 국가에서 나타나고, 국가 부채는 높아지고 있다.

### 변화에 적응하는 종(species)만 살아남는다

이상 COVID-19에 의한 사회/경제적인 현상과 대응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SARS-CoV2의 최종 목적지는 시간이 흘러 우리가 이 바이러스와 공존하는 것이다. 언젠가는 유행성 풍토병처럼 될 것이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간의 숙주화로 독성이 줄어들 것이다. 그러나 때때로 새로운 변이가 생겨 더 치명적으로 변할 수도 있다. 그 시간 동안 우리는 효율적이고 강력한 R&D 투자를 통한 과학적인 대응방법, 역사적으로 변함없이 나타나는 인간의 사회적인 행동 및 경제적인 현상들을 이해하고 합리적인 대처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It is not the strongest of the species that survives, nor the most intelligent. It is the one that is most adaptable to change."?Charles Darwin(1809-1882)



## 약사의 새로운 진로, 벤처캐피탈리스트



김준식 (43회)

저는 95학번으로 입학하여 1999년에 졸업하고 약사 면허를 취득하였습니다. 이어 모교 대학원에 진학하여 생약학전공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2002년에 일본 국립대학의 하나인 Kyushu University에 유학, 약용자원제어학 전공으로 2005년 초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하였습니다.

이후에는 전라남도에서 있는 한 대학교에서 1년간 대학교수로 일하다가 2006년 산업계로 입문하여 한미약품, CJ제일제당 제약사업부, CJ헬스케어 등을 거치며 13년간 사업개발과 라이선싱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이후 2018년에 CJ그룹계열의 벤처캐피탈인 타임와이즈인베스트먼트에 바이오 분야 투자심사역으로 투자업계에 입문하였으며, 현재는 바이오 분야 외 ICT, 커머스, 콘텐츠 부문 등 모든 기업투자를 총괄하는 최고투자책임자(Chief Investment Officer)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벤처캐피탈(Venture Capital)은 약학이라는 학문과 다소 거리가 있는 분야라 이번 기회에 통해 간단히 소개 드릴까 합니다. '벤처캐피탈'은 통상 기술력 또는 신규 사업모델을 기반으로 창업하였으나, 경영기반이 취약하여 일반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초기창업기업에 지분투자 형태로 투자하는 창업투자회사를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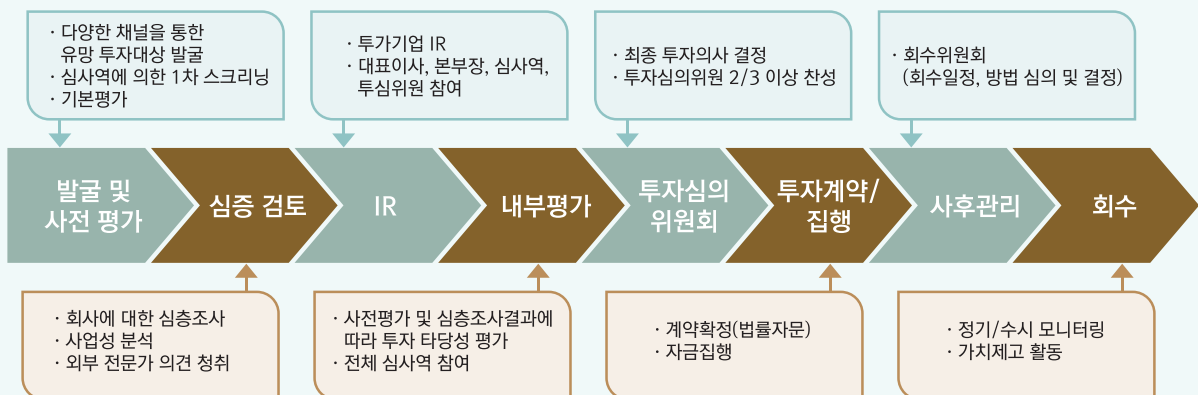
수익성보다는 안전성을 위주로 보수적 자금 운영을 하는 은행 등의 금융기관의 달리 벤처기업의 기술성과 장래성에 주목하여 원금 손실의 위험을 감수하고 수익성 위주로 운영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미 대기업인 다음카카오와 같은 1세대 벤처기업 외에도 최근 언론에서 많은 주목을 받는 배달의 민족, 아놀자, 마켓컬리 같은 기업들도 창업 초기에 벤처 캐피탈의 투자를 통해 본격 성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벤처캐피탈의 투자금은 정부의 정책적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등을 목적으로 한 모태펀드(정부관련 부처가 출자), 국책은행과 민간은행 등이 출자한 성장사다리펀드 등의 FoFs(Fund of Funds)를 비롯하며, 각종 연기금, 대기업 등의 일반 법인들의 출자 등으로 마련됩니다.

이렇게 마련된 자금은 벤처캐피탈에서 펀드 형태로 운영되며 다양한 분야의 벤처기업에 투자됩니다. 투자 의사 결정의 핵심적인 3가지 요소는 창업자, 사업아이템, 트렌드이며, 피투자회사 상황에 따라 중요도는 일부 상이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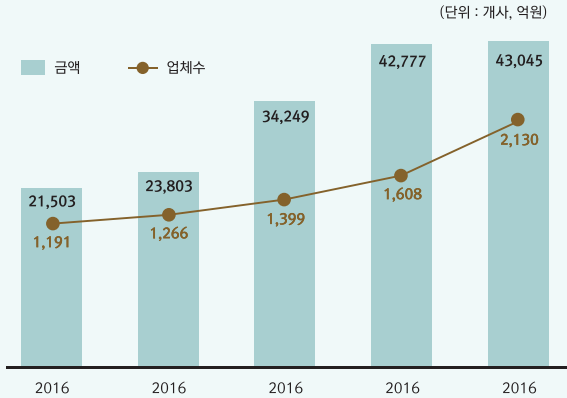
먼저, 비전을 가지고 좋은 창업팀을 만들고 유지할 수 있는 경영자, 차별화된 기술이나 시장 파괴적인 사업모델 보유 여부, 그리고 비대면, 인공지능 활용, ESG와 같은 커다란

[그림1] 벤처 캐피탈의 의사결정 시스템





### 신규투자 규모



### 업종별 신규투자 금액

(단위 : 억원)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ICT 제조	959	1,566	1,489	1,493	1,870
ICT 서비스	4,062	5,159	7,468	10,446	10,764
전기/기계/장비	2,125	2,407	2,990	2,036	2,738
화학/소재	1,502	1,270	1,351	1,211	1,765
바이오/의료	4,686	3,788	8,417	11,033	11,970
영상/공연/음반	2,678	2,874	3,321	3,703	2,902
게임	1,427	1,269	1,411	1,192	1,249
유통/서비스	2,494	4,187	5,726	8,145	7,242
기타	1,570	1,283	2,077	3,518	2,546
합계	21,503	23,803	34,249	42,777	43,045

[그림2] 최근 벤처투자 현황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자료)

사회적/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투자 의사결정 프로세스는 그림1과 같으며, 보통 2~3개월 소요됩니다.

최근 국내에서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그림 2). 특히 바이오/의료분야에 많은 자금이 투입되고 있으며, 이는 중장기적으로 신약개발과 국가 미래성장 동력 확보 측면에서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래서인지 최근 2~3년 사이에 의약학 전공자와 제약업계 인력이 벤처투자 업계로 많이 진출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의료 분야 투자에 있어서는 R&D 파이프라인에 대한 평가, 개발전략의 타당성, 상업적 잠재력 평가에 있어서 전문성이 요구되어 약학 전공자들의 수요가 많습니다. 현재 모교 동문들도 업계에 10명 이상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문 선배님들이 제약업계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벤처캐피탈 업계에서도 서울대와 함께 모교 출신 심사역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은 편입니다.

투자심사역들의 연봉이나 처우도 제약업계보다 좋은 편으로 본인만 열심히 한다면 투자 성과에 대한 충분한 성과보상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물론 수익을 중시하고 투자 성과에 대한 부담은 크지만, 항상 새로운 회사와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공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바이오 전문투자 심사역에서 출발해서 식품, ICT, 커머스 분야까지 담당하며 다양한 창업자와 기업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 흥미롭게 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이 두렵지 않은 성격을 가진 동문 후배님들의 업계 진출을 기대해 봅니다.

# ‘오도치’ 길 위에서의 상념<sup>想念</sup>



어제도 그곳에 있었고, 오늘 그곳에 있으며, 또 내일도 그곳에 자리하고 있을 그 큰 산과, 더불어 그곳을 흘렀고, 그곳을 흐르며, 또 그 곳을 흘러갈 그 큰 물의 흐름을 생각하면서, 한 인간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다듬고 더 다듬어 가는 그러한 과정의 아름다움을 그려본다.

그렇게도 심란했던 지난 가을, 겨울, 그리고 새봄이 어느덧 지나가고 초여름이 시작되는 유월 어느 날에 강원도 홍천 돌배마을의 한적한 산골 자락에 있는 ‘오도치’ 길가에서 나는 지난 시간들을 망연하게 되돌아보고 있었다.

어쩌면 그것은 무척이나 황망하게 보내버린 듯한 어제의 날들을 되돌아보고 싶지 않은 자신과의 갈등 속에서 이루어졌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명멸 되어버린 그 속절없던 시간과, 그 시간 속에서 홀로 몸부림 쳤던 모습이 한편으로는 회환으로, 또 한편으로는 형용할 수 없는 그 어떤 상념의 대상이 되어 나를 짓누르고 있음을 절실히 느끼고 있었다.



김 종 기 (18회)  
(주)다우메딕스  
최고기술경영대표

### 나는 거기에서 큰 산을 보고 있었다

산은 그렇게도 태연하게 또 그렇게도 의젓하게 완숙의 푸르름과 달관(達觀)의 넉넉함을 함께 흠뻑 머금고, 찌든 마음을 부여잡고 고뇌하는 한갓 작은 속물적 존재를 너그럽게 감싸 안아주는 포

란(抱卵)의 품으로써 충분함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 무한의 품속에는 감히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장중함이 있었고 무엇으로도 비교될 수 없는 고요함이 있었으며, 그 어떤 명약(名藥)으로도 이를 수 없는 세심(洗心) 과 세신(洗身)의 신통력이 있는 듯 했으며, 산이 높은 만큼이나 깊은 산곡(山谷)에서는 속세 인간의 미물적(微物的) 몸부림을 이내 초라하게 만들어 버릴 듯한 신비스러운 기운이 솟아 흐르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그렇게 큰 산을 보았다.

### 나는 거기에서 큰 물을 보고 있었다

물은 그렇게도 일관되고 정연하게 흐름의 지속을 유지하고 있었다. 굽어짐을 관용으로 돌아가고, 부딪힘을 자비로움으로 쓰다듬고, 거부함을 인내로 매만지며, 질곡의 후미진 곳을 그렇게도 의연하게 유유(悠悠)히 흐르고 있었다. 명경(明鏡)의 맑음으로, 일그러진 세속(世俗)의 추악함조차도 무위(無爲)로 투영하고, 아직은 시린 차가움을 한껏 머금었음에도 그것은 속세(俗世)의 냉정함이 아니며,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으면서도 만물이 요구하는 무량의 자양분을 흐름을 통해 굽이굽이 시혜 하면서도 전혀 자만하지 않고, 내색하지 않으며, 온갖 세환(世患)을 인내하고 초월(超越)한 모습으로 작은 산촌의 그 계곡을, 물은 그렇게 끊임없이 흐르고 있었다. 나는 그렇게 큰 물을 보았다.

### 나는 거기에서 인간의 한 모습을 생각해 보고 있었다

인간의 삶의 정체(正體)로서의 자아, 본성, 사유(思惟), 감성, 이성(理性), 인성, 겸양(謙讓), 관계, 능력, 감각, 아름다움, 정, 사랑 등 그러한 모든 것의 근본적 순수함을 나는 긍정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렇게도 짧은 찰라적(刹那的) 삶을 살면서도, 사욕을 추구하고, 기회를 탐하며, 이기적 속성을 드러내고, 자기를 고집하고, 자타(自他)를 속이고 또 배반하고, 일신(一身)의 편함을 추구하고, 발전적 고통조차도 회피하는 그 모든 비자아적(非自我的) 속성을 말끔히 퇴출하지 못하고 갈등(葛藤)하는 이중적 인간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결코 부정 할 수 가 없었다.

뚜렷한 주관(主觀)의 결여는 행동의 일관성을 상실케 하고, 굳건한 믿음의 결여는 스스로를 시험에 들게 하는 누를 범하고, 과정의 빈약함은 결과의 초라함이 있음을 그렇게도 경험하면서도, 아직도 서투른 몸짓으로 삶의 광해(廣海)에서 세론(世論)에 맹종하고, 논리를 거부하고, 불신의 선입관을 떨구지 못하며, 그저 안위(安慰)와 영달(榮達)을 추구하기 위해 허우적거리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반추(反芻)해 보았다. 나는 그렇게 인간의 한 모습을 생각해 보며 그 산과 그 물길 사이의 길을 따라 걷고 있었다.

어제도 그곳에 있었고, 오늘 그곳에 있으며, 또 내일도 그곳에 자리하고 있을 그 큰 산과, 더불어 그곳을 흘렀고, 그곳을 흐르며, 또 그곳을 흘러갈 그 큰 물의 흐름을 생각하면서, 한 인간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다듬고 더 다듬어 가는 그러한 과정의 아름다움을 그려본다.

홍천 돌배마을 '오도치' 길 위에서의 이 시간을 너무도 소중히 여기며...

## ‘오도치’ 길에서...

경강로 국도를 벗어나  
좁은 일차선 길을 꼬불꼬불  
산기슭 돌아서니

앞에 산이 있고  
길가 여울물 따라  
옆에도 산이고  
길 뒤편에도  
싱그런 초록 수목들 잔뜩 끼안고  
큰 산이 앉아 있네..

속세에서 벗어난 듯  
공(空)의 고요가  
한나절을 혼자 즐기며  
내려앉아 있는 그 길을  
무념 무상으로  
걷다 보니

흘어진 세월 속 온갖 일들이  
가이 없이 반추되고...

뒤따르는 발자국 위로는  
이제껏 살아온  
삶의 궤적이  
주저리 주저리  
내려 앉는데,

도대체 내 삶은  
내게 무얼 묻고 있는지...



---

## 세체니 다리에서 본 부다페스트 야경

### - 로마에서 다시 한번 소매치기 당하고 싶다

---

코로나 이전(B.C.) 2018년 여름 부다페스트를 둘러봤다. 직항편이 없어 가며 오며 로마를 경유하게 되었고, 귀국길 부다페스트에서 나와 다시 로마에서 2~3일 체류하는 일정으로 시내로 들어오는 공항철도에서 그 유명한 루마니아인(?) 3인조 소매치기단에 집사람 지갑을 털렸다. 그리고 다음 여정을 설계하기도 전에 코로나 이후(A.C.)의 날들을 말 그대로 이 악물고 버텨내고 있다. 내년이면 돈 주고도 비행기표 못 구할 것이라고들 하는데, 여행에 대한 갈망을 친구 녀석들에게 절절하게 표출한다. “로마에서 다시 한번 소매치기 당하고 싶다!”

해외여행 자주 갈 형편 안 되는 입장에서 모처럼 나가면 한 군데라도 더 둘러 보려는 게 인지상정일 터. 그러나 이번에는 마음 먹고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그냥 1주 정도 머무르기로 했다. 직항편이 여의치 않아 오며 가며 로마를 경유해야 했다. 그런데 로마 보고 나면 딱 데는 시시하다고 느낄 수 있으니 가급적 미뤄뒀다가 가라고 들은 바 있어, 비행편 때문에 할 수 없이 들리되 나중을 위해 짐짓 눈을 반만 뜨고 다니기로 했다.

파리, 프라하와 함께 세계 3대 야경도시로 꼽히는 부다페스트는 로마처럼 곳곳에 볼거리가 지천으로 늘린 그런 곳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의 ‘쌍팔년도식 감상’으로 보면 낮이건 밤이건 유람선 타고 그 유명한 국회의사당 지나가며 증명사진 찍고 국민 곰탕 굴라쉬 한 그릇 먹으면 끝, 빨리 보따리 싸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게 보편적인 코스였다. 그런데, 그냥 우리는 부다페스트에서 퍼지기로 했다.



박희용 (23회)  
편집위원

### 부다페스트의 시작과 끝, 세체니 다리

교과서에서 단답형으로 배웠던 헝가리 혁명을 묘사한 김춘수의 시 '부다페스트에서의 소녀의 죽음'으로만 기억되던 그 도시를 방문한다. 헝가리의 수도인 부다페스트는 도시를 관통하는 도나우강(우리가 아는 다뉴브강; 이곳 말로는 두나강)을 중심으로 서편이 귀족층이 살았던 부다이고 동편이 서민들이 살았던 페스트이며, 대표적인 세체니 다리(Szechenyi Lanchid)를 비롯한 몇 개의 다리로 연결되어 있다. 가이드에 따르면 세체니 다리는 헝가리 국민영웅 세체니 이슈트반(Szechenyi Istvan)에서 따온 이름으로 부다(Buda)와 페스타(Pest)를 지역이나 계층, 신분을 뛰어넘어 하나로 묶어주는 상징물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앞뒤로 4마리의 사자상이 조각되어 있어 '사자 다리'라는 애칭으로 불리며 단연 이 도시의 랜드마크 역할을 하고 있다.

이곳저곳 둘러보다 일부러라도 걸어서 건너가며 주변 풍광을 감상하기에 부족함이 없고, 역시 압권은 수백 미터 케이블로 이어진 수천 개의 전등이 도나우강의 수면을 비추는 야경일 것이다. 가이드의 말이 인상적이다. 한국사람들에게 익숙치 않은 이름이라 '새천년 다리'라고 부르니 참으로 좋아하더라고 덧붙인다.



### 1박 2일 사진찍기 포기

부다페스트 리스트 페렌츠 국제공항에서 택시로 30분정도 달려 세체니 다리를 건너면 바로 나오는 합하다고 알려져 있는 클라크 호텔을 작심하고 숙소로 정했다. 호텔 최상층인 루프탑 바가 그 유명한 부다페스트 야경을 감상하는데 최상의 장소라는 미끼를 덤석 문 것이다.

사진찍기 성지인 국회의사당이며 부다 왕궁, 어부의 요새, 성스테판 성당 등 꼭 봐야 할 명소 어디고 기분 내키는 대로 갈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제법 비싼 호텔을 택한 것이다. 자연히 호텔 들며 나며 환상적이라는 야경을 덤으로 지겹지 않을만큼 볼 수 있었다. 자주 갈 일 없는 중부유럽, 나선 김에 몇 개국이라도 찍자면 부다페스트는 그래서 1박 2일이나 유람선 타고 도나우강의 정취를 좀 즐기더라도 2박 3일 정도로 마치고 다른 나라로 이동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여정일 터. 우리는 몇 개국 순방을 포기하고 오롯이 부다페스트를 고수하기로 한 것이다.

### 횡단보도에서 손들고 지나가면 촌놈

가장 인상 깊었던 것 중 하나가 이 도시는 보행자들의 천국이다. 건널목이고 어디고 간에 아무리 차가 밀려도 보행자가 지나가면 어김없이, 정말 어김없이 우선 멈춤이다. 심지어는 예의 없는 보행자가 갑자기 뛰어들어오 창문 내리고 욕하거나 보복 경적 울리기는커녕 여지없이 멈춰 섰고 조금 과장하자면 빨간 불에 건너도 똑같은 모습이었다.

관광객들에 대한 배려인지 원래의 국민성인지 잘 알 수 없으나 처음에는 쭈뼛쭈뼛 하다가 하루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당당하게 거침없이 횡단보도를 지나는 재미가 쏠쏠했다. 미안하다고 손들고 지나가면 촌놈 취급받을 지도 모른다.

더하여 여기가 관광의 중심이라고 광고라도 하듯 세계 두 번째로 개통되었다는 지하철을 중심으로 트램이며 버스, 트롤리버스, 택시에 자전거며 세그웨이, 전동킥보드, 소형 보트에서 초대형 크루즈선, 각양각색의 유람선 등등 지금까지 보아왔던 모든 형태의 교통수단이 그것도 바로 눈앞에서 거침없이 운용되고 있었다.

세계 최초로 개설된 런던의 지하철은 백년이 넘는 시간을 거치며 계속 개량되어 초창기의 분위기가 많이 사라졌다는데, 상대적으로 돈도 부족하고 교통수요도 적은 이곳 지하철은 19세기부터 이어져 온 골동품스러운 분위기가 진하게 남아 있다.

새벽녘 호텔에서 내려다보이는 지하 터널에서 노란 불빛의 역시 연식이 오래된 트램이 지상으로 조용히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은 저 유명한 국회의사당의 야경보다 훨씬 더 포근한 마음을 선사하는 선물로 오래 각인될 것이다. 기억만으로 마음이 포근해지는 풍경이런!



### 부다페스트 1일차 오후 (호텔 체크인, 와이너리 투어)

심전도(ECG)가 그려진 와인 라벨

호텔 체크인하고 마침 점심때라 근처 동네 한 바퀴 하다 눈에 띈 식당에서 피해갈 수 없는 굴라쉬를 맛보지 않을 수 없었다. 진한 소고기 곰국으로 생각하면 비교적 우리 기호에도 맞다고 하나 그건 1박 2일에 한 번은 먹어봐야 한다고 할 때 해당되는 소리고, 며칠 동안 적어도 하루에 한 끼 영접할라치면 쪼까 거시기한 것도 입 째은 탓만은 아닐지어다.

촌음을 쪼개 써야 하는 관광길이니만큼 식후 나른함으로 호텔방에 퍼질 것을 저어하여 오후에는 와이너리 투어를 신청해 놓았다. 부다페스트 지근거리에 있으면서 가장 젊은 취향의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와이너리가 밀집되어 있다는 Etyek 지역을 둘러보기로 했다.

이곳 사람들 기준으로 현재의 세계 3대 와인 생산지는 프랑스와 미국의 나파밸리와 함께 헝가리 와인이 해당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단다. 어차피 묵은지 안주로 와인 마시는 수준에서 이런들 어쩔고 저런들 어떡하리. “그래 니네 와인 최고다.”

헝가리 와인이 세계적으로 잘 안 알려진 이유로 가족 중심의 소규모 와이너리가 많아 내수를 채우기에도 부족하여 지금도 연간 소요량의 1/3정도를 수입해야 한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한 와이너리에서 만든 라벨에 심전도가 그려져 있어 뭘 일인가 했더니 술이 심장에 좋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었다. 와인이 간에 부담을 주는 것인만큼 절대로 과음해서는 안되지만, 반면에 심장에 좋은 것으로 알려진 것도 검증된 사실이라고 당당하게 내세운다(혹시 French paradox라고 들어보셨는지?).

꿈보다 해몽이 제격이다. 헝가리 술꾼들은 간에 대한 부담보다 심장에 좋은 것을 더 높이 산다고 한단다. 왜냐하면 ‘간 이식이 심장 이식보다 훨씬 쉽기’ 때문에. 아, 이 격조 높은 술꾼들의 품격이런!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특색있는 치즈며 화이트와 레드와인을 자랑하니 유구한 역사와 이야기가 있는 저장고, 우아하게 마시는 법 등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가고 남은 자리에는 역시 도도한 취흥만이 남아 있다. 덤으로 일반인들이 주로 투숙하는 곳이 아닌 좀 유별난 호텔에 머무느라 동선이 맞지 않아 우리만 따로 와이너리까지 데려다준 대절택시 기사가 헤매는 바람에 본진에 적어도 30~40분 늦게 합류하게 되었다. 그것도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두 번씩이나 엉뚱한 곳으로 헤매었으니 제법 화가 날만도 했다.

그리하여 땀방이 소갈머리에 얼굴에 드러난 못마땅한 심사를 읽은 주인장이 저 악명높은 인터넷 후기의

두려움을 예감했음인지 계속 미안하다며 신경을 썼고, 끝내는 투어 종료시에 우리에게만 특별히 와인 두 병을 선물로 주기까지 했다. 말도 안 통하는 외국 여행에서 대개는 주눅 들기 마련인 입장에서 약간의 술을 빙자해 코 큰 서양사람 찢찢매도록 한 쉽지 않은 경험을 한 셈이다.



**부다페스트 2일차 (부다 왕궁, 마차시성당, 어부의 요새, 성스테판성당)**

야경의, 야경에 의한, 야경을 위한 도시

아마 부다페스트 여행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가 랜드마크인 세체니 다리를 걸으며 사진 찍고, 부다 왕궁 둘러보고 도나우강이 내려다 보이는 어부의 요새에서 사진 찍고, 유람선 타고 저 유명한 국회의사당 지나가며 사진 또 찍고, 성스테판 성당에서 사진 찍

고, 이게 끝이 아니라 해가 지면 다시 관광객 홀릴 조명이 기가 막히게 연출된 환상의 야경을 둘러보며 또 사진 찍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닐까 싶다.

어차피 부다와 페스타를 무시로 오가야 하는 입장에서 세체니 다리는 그리하여 한국인들 입에 새천년 다리로 친숙하게 다가오며, 헝가리 국왕들이 거주했던 역사적인 성채인 부다 왕궁(Buda Castle)은 세체니 다리 좀 지나면 바로 산악열차인 푸니쿨라를 타고 오르게 되어 있다.

바로 옆에 걸어서 올라가는 길도 있고 힘들거나 먼 거리도 아니며 더군다나 그 요금이 결코 싸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푸니쿨라는 잠시도 쉴 틈이 없다. 경사가 워낙 가팔라 마치 계단식으로 만들어진 특이한 형태인데, 타서 주변을 둘러볼라치면 다왔다고 내리란다. 너무 짧아 약간 허무할 정도고, 가성비로 치자면 무지하게 낮은 편이다. 그렇지만 관광객의 너그러움에 기대 운행한 지 100여년 지났다는 역사적 유물 구경값이라고 치면 크게 배 아플 일은 없을 것이다.

부다 지역 남쪽 언덕에 자리잡은 거대한 부다 왕궁은 재건과 파괴가 반복된 수난의 터라고 설명한다. 아직도 전쟁의 흔적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역사의 현장으로 지금은 국립현대박물관, 역사박물관, 국립도서관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왕궁 입구에 헝가리 민족의 상징인 전설의 새 '투룰'의 거대한 청동상이 위용을 과시하고 있다. 왕궁이니만큼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니며, 둘러보다 다리 아프면 아이스크림도 하나씩 사 먹을 일이다.

마차시 성당(Matthias Church) 가까이 있는 어부의 성채 또는 어부의 요새(Fisherman's Bastion)는 부다의 구릉 뒤에 위치한 성으로 뾰족한 고깔 모양의 일곱 개의 탑(헝가리에 처음 정착한 마차르족 7개 부족 상징)이 마치 동화 속의 성을 연상케 한다. 지역 방어를 위해 어부들로 구성된 시민군이 쌓았든 옛날에 어시장이 있었던 자리라서 그랬든 여기서는 도나우 강변의 아름다운 도시 전경이 정말이지 한 눈에 들어 온다. 세체니며 에르제베트며 부다-페스트를 연결하는 8개의 다리가 한 눈에 다 담기고, 워낙 거대한 건물이라 도나우강 저편에서 바라보아야 제대로 감상할 수 있다는 국회의사당을 위시하여 페스트 지역을 조감하는 광경이야말로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백미다.

낮에도 그렇지만 화려한 야경의 환상적인 분위기에 인생컷인지 인생샷인지 한 장 남기고자 다시 찾을 수밖에 없는 곳이다. 테라스 외벽의 창문처럼 뿔뿔이 난간에서 서로 약간의 거리를 두고 마주보고 앉아 찍는 명당은 하루 종일 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로 이름값을 한다. 당연히(?) 먼 이국땅에서 귀에 익은 한국말이 사방팔방에서 들려오는 유쾌한 경험을 하게 된다.





### 부다페스트 3일차 저녁 (유대인 거리, 다뉴브강 유람선, 클래식 연주회)

바흐의 Air가 G선상의 아리아인 줄 내가 어떻게 아냐고요!

도나우 강변을 따라 한 번은 안 갈 수 없는 국회의사당으로 가다 보면 2차대전 때 나치가 유대인들에게 신발을 벗게 한 후 총살한 뒤 다뉴브강으로 밀어 넣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 추모의 신발 조형물이 어지러이 널려 있다. 그렇다. 우리야 잘 모르지만 세계 제2차 대전 때 부다페스트에서도 거주하는 유대인 7만여명이 학살당했다고 한다.

자연스레 유대인 수용소로 사용되었던 유대인 거리에 있는 유럽에서 가장 큰 유대인 회당(시나고그)을 둘러보게 되는데, 예배당도 그렇지만 당시의 학살당한 2천여명의 시신이 잠들어 있는 안뜰이며 희생자들의 이름이 새겨진 은제 조각으로 만들어진 '울고 있는 버드나무'가 눈길을 끈다.

집사람이 '푸른 도나우강의 왈츠'의 나라에 왔으니 기념으로 관광객들을 위한 소규모 클래식 연주회에 가잔다. 음악이라고는 학교에서 '미쓸도미쓸 파랄라'로 배운 동요와 동네 전파상에서 귀동냥으로 익힌 트로트 몇 곡이 전부인 내게 전통 클래식 연주회란 어쩌면 너무 먼 당신 일 수밖에 없을 터. '일점사 후퇴' 이후 먹고 살기 바빠 그런 거 귀담아 들을 기회가 없었다는

말도 안되는 핑계로 무식함을 포장해온 이력이 위기에 처했다.

훑어보기라도 하라고 집사람이 내민 연주회 목록에 바흐의 Air라는 곡이 눈에 띄기에 "거 보라고, 내가 저런 뜰도 보도 못한 곡을 어떻게 이해하겠나"고 쟁쟁게 쟁을 날렸다. 아뿔싸, 그게 바로 바흐의 관현악 모음곡 3번 라장조 BWV 1068의 일부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 것인가 하는 찰나 그게 바로 G선상의 아리아라는 카운터 펀치가 돌아왔다.

세상에나, 아무리 무지함을 자랑한들 어차피 전곡은 몰라도 G선상의 아리아 단 몇 소절도 안 들어 봤다고는 차마 말할 수 없었다. 코앞에 들이민 목록에는 비발디의 4계 중 겨울 2악장, 파헬벨(파철펠이라고 했다가 욕먹었다)의 캐논 변주곡, 마스네의 타이밍명상곡, 헨델의 수상 음악 등 그레브자 음악은 모르지만 지나가는 말로 어디선가 제목은 귀에 익은 몇 곡이 올라 있었다. 혹시 순순히 따를 일 없는 나를 애시당초 염두에 두고 온갖 뒷조사 끝에 제목이라도 들어본 곡들만 일부러 모아놓은 것 같은 기분마저 들었다.

할 수 없다. 그래도 여기까지 온 김에 바흐인지 헨델인지 잘 구분은 안 되지만 음악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인사라도 드리는 게 예의가 아닌가 싶어 결국 '최고의 클래식(The Best of Classics)'이란 부제가 달린 부다페스트 바치 구역에 있는 성미카엘 교회의 연주회를 관람하기로 한 것이다.

끌려가다시피 했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뭐 나쁘지 않았다. 베를린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아니지만 나름수준 이상의 연주가들이 품격있는 중형 규모의 교회에서 나처럼 무지한 관광객들 주눅 들지 않을 정도의 분위기를 이어가며 들려주는 몇 곡의 클래식이 어쨌든 집 떠나 힘든 어깨를 다독여주는 힘이 분명 느껴졌다.

그래도 여행 중 입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나간 터라 연주회가 끝나고 그냥 아무 데나 갈 수는 없는 법. 대충 한 끼 때우는 대신 제법 비싸 보이는 이태리 식당에서 와인 곁들여 파스타와 스테이크로 호사를 누렸으니 과히 손해 본 장사는 아니었다. 평소라면 밥 먹는 내내 서로 한마디도 지지 않고 말꼬리 잡고 했을 텐데, 궁정 음악의 여운이 남아 있는 우아함으로 언어유희를 즐기는 것도 그리 낯간지러운 것만은 아니었다.



### 부다페스트 4일차 (발라톤 호수)

바다 없는 헝가리의 바다-발라톤 호수

여행이 일종의 휴양일진대 그 휴양여행에서 다시 휴양을 하기로 했다. 부다페스트에서 관광버스로 두어 시간 떨어진 거리에 있는 발라톤 호수(Lake Balaton)가 오늘의 목표다. 스칸디나비아를 제외한 중부 유럽에서 가장 큰 호수라고 해서 한 번쯤 가볼 만하다고 생각을 했고, 지형학적으로 바다가 없는 헝가리 사정을 빚대 헝가리의 바다라고 불릴만큼 큰 호수라는 표현이 우릴 끌어들었다.

옥의 티는 관광버스 가이드가 은퇴 시기를 훨씬 넘긴듯한 할머니로, 듣는 사람 입장이 아니라 순전히 자기 기분에 따라 설명을 하다말다 하는 바람에 종잡을 수가 없었다.

그런들 어떠하리. 어차피 기분내키면 속사포처럼 쏟아내는 말을 알아듣기도 힘든 터에 여행이 주는 해방감에서 이런 정도의 마음 불편함이야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발라톤으로 오가는 길 옆 너른 땅 곳곳에 잇을만하면 기름을 짤 목적으로 대규모로 조성된 해바라기밭의 그야말로 뭉텅이로 노란색이 툭툭 튀어나오는 것만으로도 상쇄가 되고도 남음이 있었다.

말 그대로 발라톤은 컷다. 수영이고 낚시고 카누고 온갖 수상스포츠 즐기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겠다. 한쪽으로 가면 옛날 마을이 있고, 다른 쪽으로 가면 호텔이나 리조트가 몰려 있다는데, 순전히 바다처럼 큰 호수 구경하기도 바빴다.

발라톤퓌레 지역에서 유람선 타기 전 호수 옆 근사한 레스토랑(Il Largo Ristorante)의 와인 곁들여 해물요리 먹는 풍경만으로 이미 위안이 되었다. 부다페스트 야경 사진찍기 1박 2일 여행이라면 꿈도 못 꿀 힐링의 시간이 온전히 우리 것이 된 것이다.

유람선 타고 망망대해 같은 호수를 한 바퀴 도는데, 작열하는 태양 아래 여행 중 내버려 둔 지저분한 수영까지 가다듬으며 썬그라스 끼고 사진 한 장 폼나게 찍는데 목숨을 걸었다.



### 부다페스트 5일차 (에스테르곰, 센텐드레 방문; 호텔 루프탑 바)

슬로바키아 국경을 넘나들며 에스테르곰 대성당으로

도나우강의 안 타볼 수 없는 유람선을 타고 바쁠 일 없이 하류로 내려 간다. 좌우한 폭의 그림 같은 풍광을 보는 것이 지루할 시간이 없다. 아래쪽으로 한참 내려가면 슬로바키아와 경계를 이루는 에스테르곰(Esztergom)에 이르는데, 강변에 에스테르곰 대성당이 우뚝 서서 위용을 자랑하고 있다.

가이드는 일부러 건너편 슬로바키아쪽에 먼저 배를 댄다. 아주 한적하고 약간 쇠락한 기운이 감도는 작은 마을이다. 대성당이 너무 커서 배경으로 삼기 쉽지 않으니 국경 너머에서 사진을 찍으라는 배려인 듯, 쉽게 말해 대성당 큰 거 자랑하는 뜻으로 이해했다. 국경검문소 같은 것은 물론 없고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에 파괴되었다가 복구된 마리아 뭐라고 하는 다리로 국경이 연결되어 있다.

로마에 있는 성베드로 대성당을 모방하여 지은 에스테르곰 대성당은 헝가리에서 가장 크다고 한다. 가이드 말이 옛날 여기가 헝가리의 수도였다가 몽골이 쳐들어오자 부다페스트로 옮겼다고 한다. 생똥맞게 큰 건축물이 아니라 역사적 배경이 있었던 것이다. 봉헌식 미사를 위해 리스트가 장엄미사곡을 작곡했더니 대성당의 위용을 잠시 엿볼 수 있었다.

대성당 자체는 물론이고 대성당 천정의 돔이며 장엄된 성상 벽화나 조각이 곳곳에 자리잡고 있어 헝가리인들의 순례지라는 말에 손색이 없다. 유럽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는 파이프 오르간도 있다.

엄숙하게 내부를 둘러보고 나오면 건국의 아버지라는 이슈트반 대제의 조각상이 있는 뜰이 나온다. 아마 헝가리 여행 중 가장 자주 들을 수 있는 이름으로 전신 동상은 물론 기마상의 형태로 곳곳에 산재함을 볼 수 있다.

잠깐 둘러보다 부속 정원 같은 곳이 눈에 띄었는데, 양 옆에 성당에서 썼음직한 오래된 종들이 가지런히 진열되어 있다. 고즈넉함과 함께 잠시 숨들리기 좋은 곳이다.

이어서 다시 이동한 곳이 셴텐드레(Szentendre), 각종 기념품과 수공예품 등을 파는 가게 혹은 공방이 즐비하여 안내도 같은 거 없이 그냥 발길 닿는대로 걸어다니면 된다. 정원이고 화분이고 꽃병이고 집집마다 골목마다 꽃들도 지천이다.

잠시 둘러보다 남자들은 만남의 장소 십자가상 근처 카페에서 얼음 동동 띄운 코카콜라 한잔 마시고 있으라고 떼어 놓고 여자들은 마음껏 돌아다니며 쇼핑하느라 시간가는 줄 모를 그런 곳이다.

어딜 가나 조용하고 한적하고 깨끗하고 여유롭고 뭐 이런 기분 때문에 여행하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아파트 외에는 아무 것도 보이지 않는 서울을 벗어난 기분은 더할 나위 없다.



#### **사족 : 호텔 루프탑 바**

우리가 묵었던 세체니 다리 건너자 바로 나오는 클라크 호텔의 루프탑 바는 소위 부다페스트에서도 가장 핫하다고 알려져 있다. 당연히 어렵게 예약을 했는데 1시간밖에 자리가 비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려니 하고 해질 무렵 올라갔더니 아하 정체를 알겠더라. 그야말로 부다페스트 사진찍기의 알파요 오메가인 환상적인 야경을 내려다 보며 한 잔 할 수 있다는 딱 그 이유 하나만 존재하는

장소였다. 비싼 음식 시키지 않고 우리처럼 칵테일 한 잔 먹는 관광객들에게는 노골적으로 야경 사진 배터지게 찍으라고 하고는 1시간만에 테이블 순환시키는 그런 장소였다.

흐흐, 우리처럼 속는 셈 치고 가보려면 가보시던개!

부다페스트는 한마디로 야경의 도시이며 보행자의 천국이며 사진찍기 좋아하는 한국인들에게 최적화된 도시였다. 그러나 기억할 것. 1박 2일 원없이 사진 찍고 나면 오스트리아 빈처럼 궁정음악을 들을 수도 있고, 중부유럽에서 제일 큰 바다같은 발라톤 호수에서 야성미를 자랑할 수도 있으며, 푸른 도나우강을 따라 하염없이 내려가다 슬로바키아 국경 살짝 넘어가기도 하며 사람 살아가는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우리네와 같은 소고기 곰탕을 즐기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도 있는 일이라는 걸.

우리는 결코  
잊지않겠습니다.



## 손동헌 교수님을 추모하며...

은사님!!! 무슨 일입니까? 두 달 전까지만 해도 약대 동문회 총회에 손수 차를 몰고 오셨는데요. 부디 넓고 편안한 곳에서 영면하시옵소서. 筆者는 손동헌(孫東憲)교수님 영전에 서서 눈물이 앞을 가리고 북받쳐 오르며 마음이 앞서 매우 무겁고 착잡할 뿐입니다.

제가 손교수님을 뵈게 된 것은 1974년 분석실험반에 1학년으로 입학하면서부터였습니다.

1980년 ROTC복무 후 당시 학장 재직시에 겨울 부산대학교 대학원 입시에 저에게 추천서를 손수 써 주시었고 그때 하시는 말씀이 공부를 계속하는 것이 앞으로의 인생의 전개 과정에 좋고 연구생활이 인생을 바꿀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1982년 10월 제31회 약학회가 조선대학교에서 열리어 내장산에 오랜만에 동행하며 내장산을 돌아보시면서 '석사 끝나가니까 박사할꺼냐?' 고 물으셨던 게 엇그제 같습니다.

청호(靑湖) 손동헌 교수님은 1930년 4월 함경남도 북청에서 태어나시어 1949년 북청농업전문학교 수의과를 졸업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립가축위생연구소에서 근무하던 어느 날, 포성과 총성이 울리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고민 끝에 전문직이라는 이유로 동원령에서는 제외되었으나 아버지와 함께 목숨을 건 남하를 결정하시었습니다.

生涯業績을 기리면,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재학시절에는 학생장을 역임하셨고 석,박사과정을 마치고 1959년 미국 뉴저지주 워너램버트 연구소에 유학하셨습니다. 1960년부터 36년간 교수 생활을 하시면서 많은 발자취를 남기셨습니다.



손 의 동 (22회)



약대 교학과장, 약대학장, 약학연구소장, 중앙대학교 도서관장 등을 두루 거치면서 봉사하셨습니다. 1994년에는 한국대기환경학회 학회장을 역임하시고 2004년에는 북청군민회 회장, 2015년부터는 재단법인 북청군장학회 이사장으로 봉사하셨습니다.

손동헌 교수님은 부산 피난시절 중앙대 약대 창설 멤버, 즉 1기생으로 입학해 약대에 2005년과 2010년에 각 500만원을 희사하고 계속해서 장학금으로 3000만원을 희사하였으며 5월 15일 스승의날에는 학교를 위하여 1억원을 기증하였습니다.

손 교수님께서는 늘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단순한 사회환원이 아니고 전쟁과 피난의 어려움을 견디어 낸 어려운 사람끼리 서로 돕는 동병상련(同病相憐)에서 나오는 마음속으로부터의 보답이었다고 회고하셨습니다.

학교가 나를 키워주고 먹여주고 살아갈 수 있는 자부심과 힘을 주었다고 하였습니다. 지금도 주변을 돌아보면 같은 아픔과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性品은 늘 웃으시는 소탈함과 너그러움을 가진 인자한 타입이셨습니다. 학문과 연구에 늘 집념하시어 매일 메모를 쓰실 만큼 꼼꼼한 성격이셨고 우리나라 대기와 환경오염에 대한 연구에 대한 열정은 대단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중금속 오염 관련 논문을 발표하고 수은, 미세먼지, 산성비에 대한 논문 등을 차례대로 끊임없이 발표하였습니다. 당시 주요 일간지와 TV, 뉴스에 계속 보도, 방송되었습니다. 노태후 대통령 시절, 연구에 열정으로 91년 제19회 세계 환경의 날 기념식에서 수은중독과 산성비등 환경오염에 관한 연구 업적으로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으셨습니다. 중대약대를 대표하는 교육연구자이셨습니다.

은사님이시자 인생과 교육의 대선배님께 정중히 바칩니다.

사모님과 교수님 자녀분의 가정에도 건강하시고 평안이 깃드시길 바랍니다.

## 손동헌(1회) 약대 명예교수, 발전기금 1억 쾌척

그간 다양한 방법으로 약학대학의 발전에 기여해온 '약대 1회 입학생' 손동헌 명예교수가 5월 15일 모교에 1억 원을 쾌척했다.

손 명예교수는 우리대학 약대의 역사를 온 몸으로 겪은 '산증인'이다. 1930년 함경남도 출생인 손 명예교수는 평양 국립가축위생연구소에서 돼지콜레라, 탄저병 등의 백신을 제조하며 수의학자로서의 삶을 살다 6·25 전쟁을 거치면서 월남했다. 피난생활의 어려움 속에서도 약학자로서의 삶을 이어가고자 1953년 약대에 입학한 손 명예교수는 우리 대학에서 학사·석사·박사학위를 모두 취득했다. 이후 미국·일본 등지에서 박사후 과정을 마친 손 명예교수는 1960년 귀국해 1995년까지 35년간 약대 교수로 봉직하며, 후학 양성에 집중했다.

환경위생학을 전공한 손 명예교수는 일찍이 환경과 약학 분야를 접목해 국내 최초로 위생약학의 중요성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 문교부장관 표창을 1970년과 1987년 두 차례 수상했으며, 1991년에는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기도 했다.

약대 1회 입학생이자 졸업생인 손 명예교수는 그간 모교에 대한 애정을 꾸준히 드러내 왔다. 이번 발전기금 기부 이전에도 장학기금과 발전기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기부했으며, 2014년에는 약학대학 60주년과 우리 대학 설립 100주년을 기념해 '우뚝 선 중앙대학교, 날아오르는 중앙 약대'



란 뜻을 담은 '용립중앙 비상약대' 현판을 직접 제작, 모교에 기증한 바 있다.

15일 실시된 발전기금 전달식에는 권석형(23회) 약대 동문회장과 김하형(31회) 약학대학장, 이무열 대외협력처장 등이 참석했다. 손 명예교수의 차녀이자 약대 84학번 동문인 손 수정(32회)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료제품연구부장도 함께 해 자리를 빛냈다.

박상규 총장은 "약대의 오늘이 있기까지 아낌없이 열정과 애정을 쏟아주신 교수님께 스승의 날을 맞아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라며 "극심한 통증이 동반되는 힘든 투병 생활 중에도 모교를 잊지 않고 큰 뜻을 담아 기탁해 주신 발전기금은 우리 대학이 세계 속의 명문대학으로 도약하며 성장하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약학연구소, 교육부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 선정



우리 약학대학 약학연구소(소장: 한상범)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이 주관하는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 선정 명단에 이름을 올려 70억여 원의 연구비를 수주하게 됐다.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은 국가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핵심이 되는 대학

의 학술·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되는 이공학 학술연구 지원사업의 일환이다. 교육부 등은 대학의 연구기반 구축을 위해 1980년부터 우수한 이공분야 대학부설연구소를 선정해 연구성과를 축적하고 연구인력을 양성하도록 지원해 왔다.

약학대학 약학연구소는 '히스톤조절 단백질 기반 난치성 질환 치료제 개발 및 글로벌 의약학 인재 양성'을 연구목표로 제시해 사업에 선정됐다. 최대 9년간 70억여 원의 연구비를 수주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후성유전학 바탕의 항암제 및 신경재생 의약품 개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교육부 등은 연구에 필요한 적절한 인력을 확보한 데 더해 개별 연구자들의 연구역량이 우수하고, 우수한 연구시설을 확보했기에 중앙대 약학연구소가 이번 사업에 선정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중앙대 약학연구소에는 소장인 한상범 교수를 비롯해 김은영, 김하형, 김현정, 김훈영, 유지호, 정선영, 조사연 교수가 참여하고 있으며, 3명의 연구교수를 포함한 5명 이상의 핵심연구인력을 갖추고 있다.

한상범 약학연구소장은 "이번 연구과제를 통해 히스톤조절 단백질 기반의 난치성 질환 치료제 개발 플랫폼을 구축할 것이다. 서울지역 거점연구소로서 우수한 연구성과를 거두고 신진연구인력을 배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박상규 총장은 "국내 최고의 역량을 갖춘 중앙대 약학대학이 미래의 국가적 먹거리이자 인류의 발전과 생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바이오 분야의 혁신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며 "약학대학이 이번 중점연구소 선정을 발판 삼아 글로벌 의약학 인재를 양성하고, 뛰어난 연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약학대학 정경혜 교수, 2021년 약사포상 시상식에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



약학대학 정경혜 교수가 5월 4일 시행된 '2021년 약사포상' 시상식에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약사포상 시상식은 약사사회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고 헌신해온 이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정경혜 교수는 그동안 서울시약사

회를 비롯한 각 지역약사회 임상약학 강의를 계속 이어오고 있으며, FIP 서울총회 조직위원회, 한국임상약사회, 대한약학회 등 활동을 통해 약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으며, 현재는 대한약사회 학술이사로 실무실습 교육을 위한 약국실습가이드 발간 등 교육사업을 위한 노력과 함께 약사교육을 위해 대한약사회 사이버연수원을 안정적으로 안착시키는 등 약사 평생교육을 위해 끊임없이 매진하고 있다.



## 약학대학 나동희 교수, 2021년 과학의 날 기념식에서 '국무총리 표창' 수상



약학대학 나동희 교수가 제54회 과학의 날을 기념하여 4월 21일 시행된 '2021년 과학·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에서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했다. 기념식은 제54회 과학의 날과 제66회 정보통신의 날을 맞이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 진흥 및 국가연구개발 성과

평가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을 통해 자긍심과 명예를 진작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나동희 교수는 2020년 기초연구실 지원사업에 선정된 "바이오 제약 산업 핵심 포물레이션 연구실"(연구기간 2020.7.1.~2023.2.28., 총연구비 13억3천3백만원) 과제의 연구책임자를 비롯해, 한국연구재단 중견연구자지원사업의 "멀티밸런트 구조의 항바이러스 나노덴드리머 플랫폼 기술 연

구"(연구기간 2018.3.1.~2023.2.28., 총연구비 15억원) 연구책임자 및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의 "바이콘테크 기반 단백질 약물의 경구투여 제품화 기술 개발"(연구기간: 2020.7.1.~2025.3.31., 총연구비 60억원) 세부책임자를 맡아 활발하게 연구를 수행해왔다. 최근에는 패혈증 치료 활성을 가진 덴드리머 구조체 연구 결과를 2020년 'Biomaterials'(IF 10.317)에 발표하였고(제목: Dual peptide-dendrimer conjugate inhibits acetylation of transforming growth factor  $\beta$ -induced protein and improves survival in sepsis), COVID-19 감염 관련 사이토카인 폭풍을 억제하는 25-hydroxycholesterol 기반 나노입자 연구 논문(제목: Lung-selective 25-hydroxycholesterol nanotherapeutics as a suppressor of COVID-19-associated cytokine storm)을 2021년 'Nano Today'(IF 16.907)에 교신저자로 발표한 바 있다.



## 약학대학 황완균 교수 연구팀, '첨단 한약(생약)제제 품질평가 기술개발사업' 주관연구기관 선정



약학대학 황완균(26회) 교수 연구팀이 '첨단 한약(생약)제제 품질평가 기술개발사업' 주관연구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주관하는 출연연과제 "차세대 의약품 평가기반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대학, 연구소 및 제

약기업 등 총 11개 기관 60여명이 참여하는 대단위 집단과제이다.

한방제제의 과학화를 위해 최신 분자 생물학적·화학적 평가방법 등을 이용한 한약(생약)제제의 허가된 효능·효과를 과학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최첨단 신규 품질평가 체계 도입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구비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매년 15억원씩 3년에 걸쳐 45억원을 지원받게 되며 2021년 2월부터 시작된다.



## 손의동, 서동철 교수 정년퇴임



### 손의동 교수

1974년 모교 약대에 입학하여 1978년 졸업(22회), ROTC 16기로 임관하여 군복무 후 1981년 부산대 석사를 시작으로 교육계에 봉사를 하게 되어 중앙대 모교

에서 정년을 하기 까지 35년을 학교에 봉직하였다. 1991년부터 미국브라운대학 연구원 3년 및 연구교수 2년의 경력을 쌓고 귀국후 영남대학교 의대에서 봉직하다 모교에서 24년 동안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150명의 후학을 양성하였고 310편의 연구논문을 출판하였다.

2004년 약학연구소장을 역임하고, 2008년 학장 재직시 현재의 두산그룹으로 학교법인이 바뀌고 동문과의 협조로 약학관을 착공을 하게 되는 약대 50년 꿈을 이룬 감회가 있었고, 약대를 최우수대학으로 발돋움시켰다.

의약식품대학원 임상약학 및 사회약학 주임교수로 10년간 봉사하였으며, 2009년 약대 BK 연구단장 및 JCR저널인 KJPP의 편집위원장으로, 2012년 ROTC 동문회장, 2013년 대한약리학회장, 2015년 대한약학회장으로 봉사하였으며,



FIP 서울총회 준비대회장 및 약학회 창립 70주년 및 70년사를 발간하게 되었다.

세계3대 인명사전에 등재되었고, 기술이전 10대 교수, 동암약의상, 의약품론가상, 최우수약리학자상, 8년 연속 업적우대교수, 약사금탑상 등 많은 수상과 10여회의 발표논문상을 수상하였다.

**“건강하게 무탈하게 정년함을 동문에게 감사드립니다.  
약학대학(학장 김하형)과 동문회(회장 권석형)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서동철 교수

모교인 중앙대학교에서 2011년부터 국내외 제약산업의 경제정책에 대한 전문가로 활동을 해오다가 2021년8월 정년퇴임을 했다. 서 교수는 1994년부터 럿거

스 뉴저지주립대학교 약학대학에서 교수겸 국제 제약경제정책 연구소 소장으로서 제약 경제·정책 분야 강의와 연구를 수행하다가 2011년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교수로 이직을 하였다.

서 교수는 미국 클린턴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제안했던 획기적인 보건의로 정책 설계팀에 참여하여 약가관련 연구와

정책제안을 하였으며 뉴저지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을 결정할 때 어드바이저로도 참여했다. 뉴저지 주립대학교에 재직시 미국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유명한 경제성평가 펠로우쉽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여 100명의 대학원 졸업생이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국제경제성 평가학회에서 최우수 연구발표상 3회 수상, Thomson Medstat 으로부터 약물경제성 평가 최우수 연구상, 미국약학대학교수협의회로부터 신진연구자상, 미국 임상약학회로부터 성과연구상 등 그 동안의 탁월한 성과연구에 대하여 여러 차례 수상한 바 있다. 미국에 있을 때 약업경제 및 의료보험분야의 연구책임자 (principal investigator)로서 매년 백만불 달러의 연구비를 받아 연구를 수행하였다.

뉴저지주립대학교 재직시 미국약학대학교수협의회 신진연구

자프로그램 심사위원장, 미국약대 Rho Chi Honor Society 의 동북부 지역위원장, 국제 약물경제성평가 학회의 초록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등 여러 위원회 중요한 직책을 맡았으며, 여러 우수저널의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 등을 맡았다.

국내에서는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학장과 의약식품대학원 원장, 한국보건사회약료경영학회 회장,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회장, 세계약물경제성평가 한국학회 준비위원장을 역임하였다. 2021년에 전세계 약물경제 전문가 2만 명이 회원으로 있는 '세계약물경제학과성과연구학회(ISPOR)에서 회원투표를 통해 이사로 선출되어 3년간 봉사하게 되었다.

**“모교인 중앙대학교에서 정년을 하게되어 감사하며 약학대학이 계속 발전하여 글로벌 약학대학으로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 신임교수 프로필



### 이종혁

직위: 부교수      전공: 사회약학

#### 학력

-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학사/석사
- 서강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경영학석사 (MBA)
-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의학박사

#### 경력

- 한미약품 개발팀,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실,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 역임
- 숙명여대 대학원, 호서대 생명보건대학/제약공학과 교수 역임
- 현재 데일리팜 자문위원, 한국제약산업연구회, 한국보건의료기술 평가학회 등 위원/이사



### 이동규

직위: 조교수      전공: 약품분석학 전공(오믹스질량분석기술연구실)

#### 학력

-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학사
-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박사 (지도교수 권성원)

#### 경력

- 2017-2019년: 서울대학교 종합약학연구소 박사후연구원(지도교수 권성원)
- 2018년: 숙명여자대학교 약학부 시간강사
- 2019-2021년: University of Illinois Urbana Champaign(UIUC) 화학과(지도교수 Jonathan V. Sweedler)
- 2021년- :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조교수

## 2021-1학기 약학대학 동문회장학금 수혜자

번호	장학기금명	장학기금액(원)	전공	성명
1	본동문회	2,000,000	약학부	문해일
2	본동문회	1,000,000	약학부	곽준혁
3	본동문회	1,000,000	약학부	변경원
4	본동문회	1,000,000	약학부	김성용
5	본동문회	1,000,000	약학	최광휘
6	본동문회	1,000,000	제약학	권용주
7	본동문회	1,000,000	제약학	이현화
8	본동문회	1,000,000	약학	송채린
9	본동문회	1,000,000	약학	이유혜
10	본동문회	1,000,000	약학	권하진
11	본동문회	1,000,000	제약학	신혁민
12	본동문회	1,000,000	약학부	이승훈
13	본동문회	1,000,000	약학	최영범
14	본동문회	1,000,000	약학	김원중
15	본동문회	1,000,000	약학	정혜주
16	본동문회	1,000,000	약학	박지현
17	본동문회	1,000,000	제약학	정원식
18	본동문회	1,000,000	약학	이현진

번호	장학기금명	장학기금액(원)	전공	성명
19	손동헌장학금	1,000,000	제약학	송우길
20	김명섭장학금	1,000,000	제약학	강유나
21	여동문회	1,000,000	제약학	민혜원
22	26회동기회	1,000,000	약학	김현지
23	26회동기회	1,000,000	제약학	박종현
24	28회동기회	1,000,000	약학	오준환
25	28회동기회	1,000,000	제약학	우유림
26	안양동문회	1,000,000	약학	이치호
27	안산동문회	1,000,000	제약학	안세인
28	부산동문회	500,000	제약학	주동규
29	병태생리학교실	1,000,000	제약학	박보연
30	병태생리학교실	1,000,000	제약학	안소정
31	생약반동문회	1,000,000	약학	김진수
32	생약반동문회	1,000,000	약학	이수정
33	약제반동문회	1,000,000	약학	정재현
34	약제반동문회	1,000,000	제약학	이지수
35	약품물리반	1,000,000	제약학	홍윤표
36	약품물리반	1,000,000	제약학	남혜민
<b>합 계</b>		<b>36,500,000</b>		

동문 한 사람의 작은 정성이 큰 동문회를 만듭니다.  
회비납부, 의무가 아니라 권리입니다!

2020회계년도 회비내역

2020년 4월 ~ 2021년 4월

회장단회비		600,000원	
22회	최광훈, 오황영, 김태일, 박동우, 김인선, 이영옥 이정석, 한만영, 고석순, 민장식, 이주원, 김홍진 이명수	28회	이해룡, 구영삼, 이영주, 김희식, 장원규, 양덕숙
23회	홍순욱, 박종화, 권석형	29회	김은진, 이종욱, 김형수, 김인혜
24회	이범도, 이규삼, 이광섭, 함삼균	30회	김광식, 최병원
25회	이현수, 최두주, 김광호	32회	조양연, 정선종
26회	한갑현, 최민규	34회	한일권, 신수민
27회	곽나운, 한봉길, 박영달	36회	임기민, 임성호, 우경아
		37회	황선관
		41회	김정민

이사회비		150,000원	
1회	손동헌	22회	강희윤, 이현희, 이명옥
2회	황재수	23회	조병훈, 박상진, 김수종, 박희용, 정덕기, 김영출
3회	강승조	24회	양성철, 임무호, 장규옥, 조종래, 황규진, 함한성
4회	이창우	25회	김희섭, 이래홍, 김완기, 고성권
5회	김채윤, 김영배	26회	김정수B, 손영상, 유영한, 김안식
6회	유상열, 박정배, 안인혁	27회	최총식, 박수길, 현기원, 오흥설, 오순용
7회	정재일, 서명규, 이기안, 김영일, 용영일	28회	이병천, 양창국, 김유근, 신영무
8회	배영애, 조의환, 박번일, 임상묵, 한석원	29회	한일룡, 박웅삼, 손병로
9회	권혁규, 박장우, 김홍래	30회	최병태, 김혜수, 김현학, 김연하, 김해승
10회	유정사, 이홍수, 변도문, 심수일	31회	이춘노, 이미자, 오세정, 윤희정
11회	김미자, 김창중, 황공용, 고승하	32회	정영복, 이경우, 유명식
12회	염윤기, 이관하, 노덕재, 심재웅, 조택상, 이호섭	33회	이정수, 김영재
13회	최창엽, 윤해선, 서국진, 안병식, 문재빈, 박동규 이종각	34회	김보원, 김기남
14회	구종모, 김동원, 조병화, 양인승, 김윤국	35회	양윤정, 유명식, 강의석, 임중식
15회	조찬휘	37회	이경모, 한덕희
16회	최창원, 이상규	38회	최은영, 정민영
17회	김인형, 김성지, 장재인, 양희익	39회	한은경, 박성훈, 권성렬
18회	조중형, 김기명, 강응모, 정명진	42회	정동만
19회	남상규, 윤건섭, 김경오, 김행소, 이경옥, 이창욱	44회	이선영
20회	정찬현, 이상일, 이극선, 임경원, 김홍진, 김현태 배성진, 이영희, 류화승, 문주기, 박기배	51회	김홍진
21회	백운경, 김수배, 양주석, 김중효, 홍종오	55회	김성태
		56회	이경민
		60회	김태수

평생일반회비		500,000원	
12회	심재창, 박광자		

일반회비		30,000원	
5회	임갑환, 임맹순, 김주원	27회	김창식, 전명수, 조광호, 이연숙, 이승목, 김윤환 염승호, 김재식, 양건모, 채규미
6회	문종찬, 이풍기, 임은수, 신의명, 유승균, 이원걸 김태형, 조 훈, 이만형, 전보연, 정진석, 신현곤	28회	기병서, 김상범, 김경완, 이혁빈, 김인권, 오상기 유정수, 이석원, 한성호, 김형준, 조효금,
7회	박승면, 윤태정, 이학길, 김동완, 이상현, 김경동 유종현, 유상근, 최명자, 송정애, 김홍배, 정현자 이강형, 윤정자, 이주학, 정조원, 김병익, 윤근형	29회	한규인, 강선영, 이경근, 장우성, 심미선, 김미숙 이강현, 사철기
8회	허근희, 최영자, 임진택, 신현우, 이태하, 이백천 정수광, 김형이, 안덕기, 임천석, 김수웅, 김순자 강윤구, 주학철, 최귀령, 정재용, 최재욱, 이능자 정달수, 김형이, 조현인, 이종학, 김복근, 이경길 허정자	30회	이경숙, 고은숙, 홍염미, 조민숙, 송정숙, 최현희 전기남, 조덕희, 손은실, 문미례, 최정진, 이경숙 조순연
9회	권오성, 김학진, 이병호, 정상모, 권태섭, 노신희 이찬호, 최보혜	31회	이정희, 유지영, 오대근, 문희석, 손호준, 유영숙 강영관, 류문숙, 강미숙, 최윤실, 이병각, 유두중 송소연, 구상미, 이동익
10회	김명민, 심수일, 이원일, 김광일, 이장열, 전광석 김정남, 김명민, 방순환	32회	정현삼, 안승희, 김현경, 채영주, 육재분, 박재홍 이경준, 손수정, 김정중, 신은숙, 윤정인, 주재현 임형미, 정세진
11회	김기영, 전창환, 한창희, 이석태, 구자역, 양계창 이석태, 이명옥, 조명숙, 안홍신, 박원준, 심재관	33회	최수향, 유정순, 박해석, 윤종배, 김정태
12회	박병달, 박홍식, 김대건, 최덕구, 홍정덕, 김일영 최승은, 오형철, 정광식, 우홍길, 이정희, 김신우 최복자, 이수우, 김정용, 조병숙, 박홍식, 장광웅 옥정남, 문혜성	34회	박상권, 김성현, 이영은, 이승호, 노영화, 김용수 임혜숙, 성선경, 백희숙, 박종우, 이 준,
13회	김창식, 우동진, 이우식, 김석규, 김명중, 최창조 신석준, 이규선, 임재용, 서지영, 김길영, 김태중 한근성, 최영호, 조찬규	35회	김성훈, 김경실, 우난숙, 석윤진, 유금주, 박민영 김 진, 김성훈, 최경순, 이화순
14회	임재의, 김원순, 박찬임, 김진행, 전영표, 류효성 현해경, 김영일, 홍성철, 채성기, 김종렬, 상경숙 김명수, 안해봉, 전봉선, 유관희	36회	이태경, 박화신, 홍성원, 방극상, 우복진, 정현희 이태건, 이정석, 박종구, 김원철, 양성운
15회	이명숙, 이인석, 정해성, 박태호, 송현숙, 박인호 김형수, 조두섭, 최창목, 김대웅	37회	김찬배, 강상민, 신희관, 이정우, 서승희
16회	윤영위, 신규언, 조연심, 박종애, 박상환	38회	곽분임, 함미경, 양경철, 박종일, 현수윤
17회	원종천, 전상훈, 이완철, 송진섭, 이동우, 정대진 이희정, 최해광, 안익진, 안병조, 김태성	39회	김학순, 전병선, 권서양, 한은경, 김해중, 김미향
18회	육득윤, 오영선, 김상각, 여운숙, 양만기, 남애숙 변수현, 권영철	40회	성종호, 장미라, 김나연
19회	채희태, 남윤수, 고문찬(고재무), 황선영, 박운홍	41회	박영진, 천경석, 장산옥
20회	송열호, 우영각, 윤춘수, 김종갑, 정동천, 김영식 최용철, 민태형, 이차웅, 방금숙, 이종훈, 이재형	42회	이창영, 남은정, 민명기
21회	우건상, 조홍윤, 임정환, 한찬수, 이두순, 정재일 장창만, 안병현, 김진자, 김동학, 이진경, 이상준 백기홍, 한태식, 노재하, 최병철, 한성희, 송주식 신길득, 김용주, 박전희, 김동연,	43회	송세현, 김민석
22회	천경호, 공명숙, 장상대, 이상돈, 신언숙, 김종궁 장용운	44회	백성숙, 고정봉, 정의찬, 양미선, 정영자, 유경미
23회	이원걸, 임창영, 정관영, 박찬중, 박찬중, 공인호 김재한, 임종서, 나용태, 오신환, 제갈희, 송명숙 강호영, 김순현, 한병철	45회	조찬균, 조창균, 김지하, 박성희, 조동환, 조수현 권영삼, 서태환, 이상영
24회	정상수, 원경선, 이형수, 김정무, 신용철, 함기철 윤규형, 정현자, 임철빈, 윤원철, 정종근	46회	배종구, 강병균, 한아름, 김윤경
25회	이수영, 김선열, 김태원, 김형욱, 이동규, 권석형 손현우, 김창현, 이승정, 장명열, 이영제, 오한희	47회	김기돈, 박선영
26회	최종배, 반수호, 김기형, 이순아, 양승훈, 김영후 김정수A, 김봉일, 박주돈, 진희역, 오승주, 최옥숙 손영득, 김재역, 정기춘, 나중우, 최국환	48회	백주민, 송유화, 정혜림
		49회	강령아
		50회	우종식, 우종식, 박주현, 신채욱
		51회	송호선, 이명원, 박경태, 박찬영
		52회	김아람
		53회	최지현, 서은려, 박현민
		54회	고명수
		55회	심재선, 임경선
		56회	오일환, 이동훈, 윤지영
		58회	전은진
		60회	변성민, 임성주
		61회	양대형
		62회	김의석, 이희주, 이여름, 김예슬, 김수빈, 이정규
		63회	유찬재, 이상우, 이현택, 정영섭, 윤정인, 김인겸 지동빈
		64회	조 을, 홍주현

※ 2021년도 5월 이후 납부하신 회비는 다음호에 게재됩니다.



# 푸생의 聖杯



김기명(18회)  
편집위원장

김기명(18회)  
편집위원장

코로나 19 확산, 위기극복, 델타 확산 우려, 마지막 대응입니다.  
감염증 4차 확산으로 적극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스스로 일상생활을  
삼가며 확진자와 가족의 고통을 기억하며 기도하십시오.  
방역당국 알림문자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세요.  
그리고 최선의 협력을 기대 합니다.  
지금까지 지난 여름 우리의 이야기였습니다.

박희용(23회)  
편집위원

모든 행사가 중지되었습니다. 회장단회의도 초도이사회도, 20주년 기념  
식도, 50주년 기념식도. 줌(Zoom)이란 신문물이 그나마 겨우 숨통을 터  
주고는 있다지만 얼굴 맞대고 따스한 체온 느낄 그런 상황은 사치스런  
꿈이 되었습니다.  
추석 지나면 그나마 나아진다고 하지만, 하도 많이 속아서 글썽요? 대신  
기분 좀 내려구요.  
코로나 이전 요행히 다녀왔던 여행의 기억을 주섬주섬 끄집어내며 헛헛  
한 마음을 달랠니다. 로마공항철도에서 소매치기 당했던 강렬한 기억이  
다시 한번 더 당하고 싶다는 웃픈 현실 속의 염원을 담아서 말입니다.  
누구도 지켜주지 않는 세상, 부디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원(30회)  
편집위원

23대 집행부에 사무총장의 직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무엇하나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동문회의 심장은 박동해야 할 것  
이고, 혈관을 통해 혈액이 순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원활한 순환의 백혈구가 되고 적혈구가 되고  
혈소판이 되어 구석구석 소식을 전하는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동문 여러분 힘내십시오.

*“First Choice of 5 $\alpha$ -reductase inhibitor”*

 **큐로이드<sup>®</sup>** 정  
[피나스테리드 5 mg]

**“양성 전립샘 비대증 치료제”**





‘빛나는 피부를 기억하다’  
기억하세요, 리쥬란®

Remember, REJURAN® [턴오버 앰플 30ml]

# 자연을 연구하는 글로벌기업

## 노바렉스 NOVAREX

노바렉스는 건강기능식품과 기능성 원료를 개발, 생산하는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입니다.  
첨단화된 기술력과 생산설비로 품질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 NOVAREX 고객사

국내외 유수의 기업에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송공장 (본사, 생명과학연구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4로 80  
오창공장 충청북도 청원구 오창읍 각리 1길 64      서울사무소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310 유니온센터 2층

# 도전하겠습니다! 개척하겠습니다!

모두가 쉬운 길을 택할 때,  
아무도 가지 않는,  
새로운 길만을 개척했던 한미약품!  
인류건강을 위한  
혁신신약 연구개발로  
삶의 가치를 높이는데 앞장서겠습니다





## 중앙대학교약학대학동문회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로 84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610호-1

전화 02-565-1700 팩스 02-564-1701 홈페이지 [www.caupharm.or.kr](http://www.caupharm.or.kr) 이메일 [capa21@hanafos.com](mailto:capa21@hanafos.com)